세미나자료 2025-14

2025 영유아교육 포럼

문화다양성 교육의 쟁점과 실천

2025. 11. 11.(화) 13:40 ~ 16:30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주최 교육부 ·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25 영유아교육 포럼

문화다양성 교육의 쟁점과 실천

2025. **11. 11.** (화) 13:40~16:30
유네스코회관 11층, 유네스코홀

| 세부일정

사회자 : 박원순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시간		세부내용
13:40~14:00	(20')	**등록**
14:00~14:10	(10')	**개회**
주제 발표 및 토론		
14:10~14:50	(40')	**주제발표 1	다문화 유아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 구수연 교수	국립군산대학교
14:50~15:30	(40')	**주제발표 2	유아 세계시민역량 강화 방안** ▸ 문무경 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상옥 연구원	충남대학교 세계시민교육 연구센터
15:30~15:45	(15')	**휴식**
15:45~16:30	(45')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 : 박원순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 토론 : 어성연 교수	중앙대학교 김은혜 교수	계명대학교
16:30		**폐회**

2025 영유아교육 포럼

문화다양성 교육의 쟁점과 실천

CONTENTS

주제발표 1 다문화 유아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_ 1

▸ **구수연** 교수 | 국립군산대학교

주제발표 2 유아 세계시민역량 강화 방안 _ 35

▸ **문무경** 연구원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이상옥** 연구원 | 충남대학교 세계시민교육 연구센터

토론 및 질의·응답 _ 65

▸ 사회 : **박원순** 연구위원 | 육아정책연구소

▸ 토론 : **어성연** 교수 | 중앙대학교

김은혜 교수 | 계명대학교

주제발표 1

다문화 유아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발표자 구수연 교수 | 국립군산대학교

2025 영유아교육 포럼 _ 문화다양성 교육의 쟁점과 실천

다문화 유아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

구수연 교수 | 국립군산대학교
김호현 교수 | 광주대학교

Ⅰ. 서론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문화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농촌 지역의 인구 유출 현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문화 인구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건수는 20,431건으로 전년 대비 17.2%가 증가하였고, 2023년 출생아동수는 12,150명에 이르고 있다. 2018년 334,856명이던 다문화가구는 2024년 439,304명으로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약 17만 명을 넘었고, 이 중 6세 이하 영유아가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구 형성 요인에 따라 다양한 구성을 보인다. 다문화가정은 유학생 가족,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여성이민자 가정, 외국노동자로 입국하여 본국의 가족이 이주해 온 경우의 가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가정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남자와 이혼한 결혼이민자가 출생국의 남자와 결혼하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다문화 가족 형성 배경에 따라 영유아교육기관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배경도 다양하다.

농촌 및 중소도시 지역은 저출산과 인구 유출 현상으로 인해 그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의 다문화 영유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유아교육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하며, 유아교육 현장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교사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교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다양한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다문화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박미정, 2016; 박지윤, 2020)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언어·정서발달 지원체계의 부재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였다(이혜진, 2019). 또한 적절한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다문화 아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급일수록 교사의 업무 부담과 정서적 소진이 커지고 있어(김은주, 2018),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교육과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정연숙과 박지윤(2020)은 다문화유아가 언어지연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다고 하였으며, 의사소통의 한계로 인해 다문화 가족과의 문화적 오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박미정, 2016). 교사들은 다문화교

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구·교재·시간·행정적 여건이 부족해 교육과정 실행과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이선화, 2021). 농어촌 지역에 결혼이주·외국인 근로자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돌봄·교육 수요와 적응 문제가 크다(박대식, 마상진, 권인혜, 2011). 특히 전북 등 농어촌 영유아 보육 실태에서도 소규모화·폐원 증가와 함께 다문화·취약계층 돌봄의 구조적 부담이 되고 있다(이주연, 최지훈, 2021).

이처럼 다문화유아교육 현장은 언어·문화·행정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농촌형 기관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자녀 비율이 높고(박대식, 마상진, 권인혜, 2011). 무국적 아동은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국적에 따른 보육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도시 중심이거나 교사 인식조사에 집중되어 있어 실제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많이 재원하는 기관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유아교육기관을 농촌지역, 도시근교지역, 산업단지 등에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각각의 운영 실태와 요구사항을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출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유아가 다수 재원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운영 실태와 현장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 농촌 지역, 산업단지 인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 다문화가정의 생활 여건과 지원 요구를 탐색하고자 가족센터의 센터장 및 담당자와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참여자는 대도시, 농촌, 산업단지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교육 경력이 있는 원장과 교사, 다문화가정과 교류하는 가족센터 센터장과 실무자이다. 이 기관들은 다국적 가정으로 구성된 곳과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곳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미국 등 다국의 다문화유아로 구성된 곳이 있고 반면 고려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에서 온 유아로 구성된 곳이 있다. 후자는 국가가 다르지만 모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유사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은 유아로 구성되었다. 지역 및 기관, 다국 및 동질성으로 구분한 이유는 이 구분에 따라 운영 실태와 요구가 다를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가족센터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여한 가족센터는 두 곳이었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위치한 곳이었다. 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원서비스와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표 1〉 면담참여자 정보: 유아교육기관

기관 유형	설립 형태	지역	신분	근무 경력	학급수 및 연령	전체 아동수	다문화 아동수	다문화 아동 국적	가정배경
A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농촌	원장겸 교사	24년	0(1), 1(2), 2(1),	15	9	베트남, 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네팔	공장근로자 (불법체류, 국적미취득자포함)
B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도시근교 국공립	원장	38년	0세(1), 1세(1), 2세(1), 유아혼합(1)	17	11	몽골, 베트남, 미국, 필리핀	유학생 (불법체류 국적미취득자포함), 결혼이주
C 어린이집	사회복지 법인 어린이집	농촌사회 복지법인	원장	11년	1세(1), 1-2세(1), 유아혼합(1)	17	16	베트남,중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네팔	공장근로자 (불법체류,국적 미취득자 포함)
D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광역시	원장 교사	25년 13년	0(6), 1(0), 2(7), 3(11), 4(0), 5(17), 3-5혼합(26)	77	75	베트남, 고려인, 캄보디아, 우즈벡, 러시아, 중국	공장근로자 일일근로자 개인사업자 (불법체류, 국적 미취득자 포함)
A 유치원	병설 유치원	도시외곽 공립	교사	15년	유아혼합(2)	19	18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공장근로자 (불법체류, 국적 미취득자 포함)
B 유치원	병설 유치원	광역시	교사 2인	28년 15년	5(4), 3-4혼합(3명)	7	7	고려인, 우즈벡, 러시아, 카자흐스탄,	공장근로자 (국적 미취득자 포함), 결혼이주

〈표 2〉 면담참여자 정보: 가족센터

기관	담당자	근무경력	사업대상	사업내용	담당인원
A시 가족센터	사례관리사	3년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온가족보듬사업 내 사례관리로 판정된 가정의 자원연계 및 지원	4명의 사례 관리사가 47가정 관리
	언어발달지도사	2년	5세 이하 영유아	유아교육기관 방문 언어발달지도	8명
B시 가족센터	센터장	10년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등	총괄
	온가족보듬사업 내 선임 사례관리사	9년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	온가족보듬사업 내 사례관리(학습정서, 생활도움, 출산양육 지원)	3명의 사례관리사가 64가정 관리

2. 자료수집

이 연구는 면담분석을 하기 위하여 면담자료와 문서를 수집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 선정은 연구문제에 관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참여자를 의도적으로 선정하는 목적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유아교육기관 및 가족센터용 반구조화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면담질문은 '다문화유아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나요?', '다문화유아의 언어 발달이나 학습 양

상에서 관찰되는 특징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정 영유아가 많아진 이유로 추가의 재정 부담이 있습니까?' 등이었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와 1회씩, 매회 1시간 30분에서 두 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면담 과정은 모두 클로버 앱으로 녹음하였고, 녹음 기록은 앱으로 자동 전사하였다. 자동 전사 파일을 읽으며 전사 오류 발견 시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수정하였다. 파일을 읽으며 생기는 추가 궁금증을 메모하여 전화와 메일로 면담참여자에게 추가 질문을 하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술의 맥락과 의미를 확인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 단계에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경험 속 반복하는 의미 패턴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딩했다. 관찰 기록과 면담에는 일상 활동, 상호작용, 상징 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으므로, 연구자는 의미상 관련되는 단위들을 묶어 범주를 만들었다(Strauss & Corbin, 1990). 코딩 절차는 개방형 코딩, 중추 코딩, 선택 코딩의 순서로 이루어졌다(Strauss & Corbin, 1990). 개방형 코딩 단계에서는 자료 속 반복하는 개념이나 사건을 폭넓게 식별하여 잠정 범주를 설정했다. 이 단계에서 범주는 충분히 수정·확장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조영달, 2015). 중추 코딩에서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하위 범주들을 조직하여 범주의 구조적 관계를 명확히 했다. 선택 코딩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연구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범주 간 관계를 정교화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항목을 정리하여 분석 틀을 완성했다.

Ⅲ. 연구 결과

1. 다문화 학급 운영의 어려움

(1) 언어·발달 지연 문제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이 우선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의 언어발달 지연문제이다. 유아교육기관의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는데, 비다문화가정의 영유아들과 비교할 때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언어 발달 지체는 가정 내 한국어 사용의 부족과 부모의 언어 발달에 대한 인식, 학급 내에서 이들의 언어발달을 지원할 인력과 시간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① 언어발달 지연과 지원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공장지대에 있는 유아교육기관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가 다수 입학하게 된다. 이들 중 본국에서 태어난 중도입국 영유아 경우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입학한다. 언어는 유아교육기관 적응, 놀이, 사회관계를 매개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급선무이다.

일단은 이 아이가 말을 못 듣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상태인 거잖아요.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청각과 언어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게 가장 안타깝기도 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한데 초반에는 그래서 저희가 통역 어플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출신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면 그 나라 말로 바꿔가지고 저희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려주고 이제 그 아이가 얘기를 하면 저희도 어플을 사용을 해서 이제 조금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그 나라 말로 소통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계속 그 나라 말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한국어를 그 아이가 습득을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더라구요.

(A유치원교사 면담 기록)

그러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알고 난 후 신청을 해도 대기인원이 많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 1년이 지나는 동안 영유아의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서비스에 따라 외국인은 이용할 수가 없는 점도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학습에 장애물이 되었다.

제일 먼저 1:1 언어지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관이라서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지도사가 어린이집에 와서 지도해 주었고, 실제로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그게 제일 절실한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신청하니까 1년 반을 기다려야 한 대요. 그래서 제가 시청에 이 사안으로 전화도 해서 건의도 한 것 같은데 고쳐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거의 포기했죠.

(B어린이집원장 면담 기록)

② 가정 내 모국어 사용

연구 참여자들은 언어 발달은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사용 경험이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이 외국인 엄마와 아빠로 구성된 경우 부부가 자신들의 모국어로 대화를 함으로써 자녀가 가정내서 한국어 사용 경험이 적어 영유아기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자녀의 한국어 구사는 다문화가정의 부부 구성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으로 구성된 부부의 경우 모국어를 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자녀의 한국어 사용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한국어 이해력이 낮았다.

이제 그러니까 결혼 이주긴 하지만 대부분이 다 첫째를 한국 남편하고 난 분들인데 그러고 한국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다시 이제 그쪽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경우도 좀 있어요. 자국 출신 네 네 그래 가지고 집에서는 이제 그 자국 언어를 이제 특히 베트남이 좀 그렇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좀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게 한국말을 했을 때의 이해력은 좀 떨어지더라고요.

(C어린이집원장 면담 기록)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거의 못하세요. 공장 일만 하시고 집에서는 자기 나라 말만 쓰니까 아이들도 한국어가 잘 늘지 않아요.

(A유치원교사 면담 기록)

한국인 아버지와 결혼여성이민자인 부부인 경우, 아버지가 한국말을 잘하고 어머니도 몇 년간 한국어를 익힌 경우에는 자녀들의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지만,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자녀의 언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엄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한국어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얘가 정말로 다문화일까 하는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이렇게 한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아빠가 이제 자꾸 이렇게 자상하게 얘기해 주고 놀아주고 하는 아이들은 괜찮은데, 엄마가 좀 이렇게 (한국어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부 그냥 소통만 되게, 이제 그냥 그런 분들은 아예 거의 아이들도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
> (C어린이집원장 면담 기록)

③ 언어 발달에 대한 인식 차이

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지도사의 지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부모가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의 언어발달지원에 대한 신청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언어발달지체가 의심되는 영유아들의 부모에게 언어 발달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하지만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지도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 개별적인 좀 그런 발달적인 문제나 이런 아이들은 따로 좀 이렇게 지도하시려고 가정과도 얘기를 긴밀히 하고 선생님하고 가정하고의 그런 것들도 있는데 실은 부모님들이 좀 고집이 좀 세요. 다문화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렇게 생각들이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하고 이제 원감님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하죠.
>
> (C어린이집원장 면담 기록)

④ 다언어 필요성

다문화유아 중에는 자신의 모국어 발음 및 표현이 불안정하다. 해당 유치원은 교육부 지침과 무관하게 주 3회 러시아어 수업을 마련하여 동화 읽기와 문자 학습을 통해 모국어 능력을 보완한다. 모국어를 잘하면 한국어 개념 이해더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모국어 유지가 한국어 학습에도 도움된다.

> 모국어가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발음도 안 돼. 저희가 일주일에 세 번 러시아어를 교육해요. 이중언어 선생님께 수업해달라고 부탁드려서 러시아 동화도 읽어주고, 글자도 알려주고, 러시아어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부 지침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시간을 마련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뭔가를 설명할 때 모국어를 모르면 이해가 늦은 것 같더라고요. 단어의 뜻을 아무리 한국어로 쉽게 설명해도 몰라요. 러시아 말 한마디면 바로 이해해요.
>
> (F유치원교사 면담 기록)

부모들은 세계 공통어라는 이유로 영어 교육을 강하게 요구하지만, 유아들은 이미 한국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익히는 과정에서 학습 부담이 크다. 유치원 교사는 영어교육을 교육과정 안에서 강화할 경우 언어 혼란과 학습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한편 부모요구를 고려해 영어 미술과 영어 동화 등 가벼운 영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부모님들이 영어를 원하세요. 세계 공통어라고 생각하시고. 교육열이 엄청 높아요. 집에 가면 학습지 하고, 영어도 배우고, 자기 모국어도 계속 지켜가길 바라고요. 부모님들이 원해서 영어 미술도 주 1회 해요. 영어도 하시는 이중언어 선생님이 수업을 해주고 계세요. 부모님들이 영어 수업을 원하시지만, 솔직히 깊이 있는 영어는 무리다 싶어서 공식적으로는 하지는 않고요. 영어 동화, 알파벳, 노래 정도. 맛보기 정도로 해요. 국가에서 영어까지 하라고 하면 저는 수업은 하겠는데 애들이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 지금 한국어도 힘들다고 하는데. 얼마나 즐겁게 배우느냐 그게 문제지. 그냥 노는 거지. 근데 거기다 영어를 추가하는 건 반대에요. 부담 없이 간단하게 영어 수업을 한다면 괜찮아요. 노래로 배우면 애들도 좋아하고.
>
> (B유치원교사 면담 기록)

(2)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① 놀이의 확산을 위한 상호작용의 어려움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유아의 자율적 놀이가 중요하나, 또래,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어려운 외국인 자녀들은 주로 놀잇감을 가지고 혼자 놀이를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놀이가 확장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교육적 지원을 위해 영유아 중심 놀이를 지켜보기보다는 교사주도적 필요한 놀이 활동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사 주도적인 활동이 더 많게 되었다.

> 언어가 안 되니까 혼자 놀이하고, 놀잇감 탐색에만 그쳐요.
>
> (C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놀이중심 교육 과정 하다 보면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 거 아이들이 원하는 거 이걸 교사가 캐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놀이를 확장을 하라는 취지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내에서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언어적으로 충분히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아이들이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서 놀이 과정 확장이 많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저의 말을 수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이걸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교사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놀이 중심의 운영을 하기는 어려웠고요. 그냥 이제 교사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진행할 가치가 있는 수업이고 활동인 것 같아 생각해서 제가 그냥 해가지고 아이 얘들아 오늘 선생님 이런 수업을 준비했어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교사가 제안하는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
> (A유치원교사 면담기록)

교사와 유아 간 소통의 어려움으로 놀이 이해와 지원이 어렵다. 유아가 모국어로만 상호작용할 경우 교사는 놀이의 의미, 대화 내용, 갈등 상황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오로지 행동과 분위기만을 근거로 눈치껏 개입해야 한다. 이는 놀이 확장, 언어 발달 지원, 또래 상호작용 지도와 같은 개입이 제한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 아이들이 자유 놀이할 때도 한국어로 대화한다면 무슨 대화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욕을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행동으로 보고 무슨 놀이를 하는구나 정도만 알 수 있어요. 놀이 지원을 하기가 어려워요. 안 들리니까. 행동 보고. 눈치껏. 아이들은 우리 말을 못 알아들어도 맥락은 조금 파악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네” 하고. 따라 하기도 하고. 서로 어떤 대화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도 오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하고 있구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조금은 이해하긴 해요. 아이가 요청하지 않아도 제가 아이 옆에 놀잇감을 살짝 갖다 놔요. 살짝 갖다 놓으면 ‘어’ 하면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놀이가 확장될 수 있게.
>
> (F유치원교사 면담기록)

어린이집에서도 유아와 교사 사이의 언어적 소통 한계로 인해 놀이와 상호작용이 깊이 있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하고 쉬운 표현만 사용하기 때문에 교사의 의도나 정서적 메시지가 아이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아이의 감정이나 요구를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중도입국 유아는 한국 문화와 언어 경험이 부족해 또래 집단에 편입하기 어렵고, 입학 시기가 늦을수록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 소통을 단순한 단어와 쉬운 단어로만 하니까 한국 유아들과 놀이 중심 하는 것처럼 깊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도 환경을 꾸미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게 깊지는 않아. 좀 더 깊이 있게 하려면 언어가 기본이에요. 이중언어 선생님이 있으면 뭔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사가 어떠한 의도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왜 갑자기 침울한지 아이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더 가깝게 다가갈 수도 있고. 특히 중도입국한 아이는 한국 문화를 많이 경험한 아이들하고 섞이기 힘든 문제가 있죠. 그런데 완전 한국 어린이들이 오히려 그들 사이에 깊이 못 들어가니까 좀 아쉽죠. 그래서 영아부터 죽 다녀야 해. 중간에 갑자기 와서는 한국말도 트이기 어렵고. 7세 유아인데 9월에 원에 오면, 초등학교 갈 준비한다고 늦게나마 들어온 건데 초등학교에서도 힘들 거예요.
>
> (F유치원교사 면담기록)

② 외부 활동을 지향

도시 외곽에 사는 다문화가정은 도시 내부로 나가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한국의 유아 놀이 문화나 환경을 잘 알지 못한다. 교사들은 이동이나 예산 등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외부 활동을 계획하여서 영유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자 :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신 점이 있나요?

B원장 : 저는 다문화 아이들과 가급적 많이 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일하는 기관이) 사회복지기관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하면 참여하고 지역에서 다문화 축제하면 참여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지역행사나 관련 기관에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이 있나 찾았던 것 같아요. 학부모들 부모교육도 시도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어요.

(B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아이들의 조금 요구랑 흥미를 좀 고려를 해요. 그래서 여기 아이들의 특성이 이제 좀 이렇게 다양한 나라 아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시에서 흔히 접했던 해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키즈 카페든지 영화관 관람이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시내것들을 여기 아이들은 굉장히 새로워라고 신기로 그런 키즈카페든지 영화관이든지, 뮤지컬이든지 이런 거 공연을 보러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아교육진흥원이나 김제에 있는 석교 부원이든지 이런 것들이 가기도 들어가고요.

(A유치원교사 면담 기록)

영아반 학급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또래 간 다툼이 잦은데, 외부 활동을 하면서 신체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면 분쟁이 줄고, 또래와 놀이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어 교실 내 갈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싸우기도 많이 하는데 처음에 한국 아이들 2살이 됐는데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집에서 강하게 키우는 이 아이들은 외국 아이들하고 안 놀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외국 아이들이 대체로 순해요. 순한 편이어서 집에서 이제 드센 애도 개 중에 한두 명은 있는데 대체로 순하고 그래 서 얘네들이 한국 애들이 이제 때리기도 해요.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이 지도하는데, 아이들이 융합하기까지 바깥활동의 역할이 좀 컸어요. 선생님 안에서는 애들이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밖에서는 마음껏 뛰어놀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고 뛰고 올라가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바깥 활동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면 손을 잡아야 산에 올라가니까 잡아야 이제 섞어서 제가 손도 잡게 하고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형아들이 동생도 잡고 누나들이 되는 거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해서 하다 보는 거에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바깥 활동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A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3) 학부모와의 관계

① 양육의 문화적 차이와 생활지도의 어려움

일부 다문화가정에서는 교육적 열의가 높고, 자녀에 대한 관심도 많으나, 대부분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육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우도 있다.

> 엄마들이 일하느라 모두 바빠서 집에 돌아와서 밥해 먹고 자기 바쁘니까. 사실 집에 데리고 있어도 아이들이 저녁먹고 자니까 엄마랑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별로 자극이 없어요. 엄마랑 말할 시간도 없고. 젊은 엄마들은 핸드폰을 하루종일 해요. 여기 와서도 자기네들 언어로 핸드폰에서 계속 대화하고 그러느라 아이들에게 좀 관심이 없어보여요.
> (B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원장들은 식습관 지도에서도 한국 음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영아는 식사를 잘 하지 않아서 특별히 더 신경을 썼는데, 이슬람 가정의 자녀의 경우에는 고기를 먹지 않아서, 단백질 공급을 위한 대체식을 준비하기도 한다.

> 식사는 제가 이제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어요.그래서 아까 말한 동남아에서 온 아이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안 먹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좀 경계가 심한 가정은 모든 고기를 안 먹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콩고기, 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식 준비해 놓고 이제 그런 거 대체식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 (D유치원교사 면담기록)

부모의 양육관으로 인해 식사지도가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늦은 나이까지 자녀에게 모유를 먹이는 가정에 대해, 가정에서 자녀가 식사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안내하였지만, 나중에 크면 밥을 먹는다고 밥을 먹이지 않았다. 유아의 저작운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가정과의 협력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식사지도를 하기 어려웠다.

> 여기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을 했었잖아요. 작년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엄마가 힘이 드니까 이제 보내긴 했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밥을 잘 안 먹는다는 거예요.그래서 집에서 밥을 먹여야 되겠다고 점심 때 아이를 데려가기 시작했었고요. 아기가 낳고 나서는 이제 동생이 모유를 먹으니까 아기가 밥을 안 먹고 모유를먹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모유 안 돼요. 모유 먹이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먹여요 하는데 변을 보면은 이제 황금색 모유 먹은 변이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금도 아마 먹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한테 말은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섭식 작용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와도 이렇게 예를 들어 토하면 밥알이 그대로 있어요. 씹지 않아가지고...
> (C어린이집원장 면담 기록)

> 그런데 음식에서 좀 안 먹는게 집에서 잘 안 먹어보면 아이들이 잘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급식에서 먹어볼 수 있도록 엄청 신경을 써요.
> (B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 영유아들이 계절에 맞게 옷을 입힐 것을 부모님께 당부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출신국의 계절에 따라서 온도 감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측하였지만, 자주 당부를 함

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히거나, 겨울에 내복을 안 입히고 보내는 일이 반복되자,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동의 옷을 물려받아 깨끗하게 세탁하여 입히기도 한다.

> 애기가 지금 발달이 정말 늦은 애 같은 경우는 아예 분별이 없어서 그냥 안 했는데 팬티도 안 입혀 보낸 애들이 있어요. 팬티를 안 입혀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팬티는 좀 입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애기가 대소변을 빨리 보게 하기 위해서 안 입히신다고 하니까.
> 저희하고의 그게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내복도 잘 안 입어요.베트남 아이들은 겨울에 그리고 추위를 별로 안 타요. 옷은 입혀서 보내시는데 내복을 겹쳐 입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처음 상담할 때 여벌 옷, 또 어디서 제가 준비한 여벌 옷이 있고, 내복도 다 준비해 놓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팬티나 손수건 같은 거 주면 받아서 써요.
>
> (A 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국가별 음식 문화와 위생 관념의 차이로 인한 습관과 생활지도에서의 어려움도 드러났다. 특히 중도입국 유아는 식습관·청결·기본 생활 규칙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교사는 지속적인 개별 상담과 지도를 해야 하는 부담을 느낀다. 이러한 차이가 해소되지 않으면 또래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생활 문화 적응이 다문화유아교육에서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 어떤 국가 아이들은 항상 따뜻한 물을 마셔요. 여름에도 아이스크림 안 먹고 따뜻한 거 먹고. 그런 음식 문화에서 차이가 있는데 영아부터 다닌 아이들은 점차 우리 문화에 적응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은 차이가 확 나요. 아예 소통이 안 되고, 흰쌀밥 밖에 못 먹고. 그밖에도 식습관 지도, 기본 생활, 위생과 청결 교육할 때가 조금 힘들죠. 청결에 신경을 안 쓰는 부모님이 있어요. 개별 부모 상담 때 말씀을 드리고, 계속 통화하면서 권유해요. 냄새나거나 안 먹거나 그러면 다른 친구들하고 친해지기가 힘들어지기도 하니까.
>
> (F 어린이집 면담기록)

다문화가정에서는 훈육 방식과 양육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달라, 교사가 즉각적으로 지도하려 할 때 부모가 불편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교실 내 일관된 규칙 적용이 어려워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자조 기술과 예방 접종 같은 기본 생활 교육에서도 문화·종교적 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상담과 설득이 필요하며, 이는 교사에게 정서적·노동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 아이가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때그때 훈육을 하잖아요. 어떤 엄마들은 “우리 애한테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말하세요. 내가 교육할게요.” 그러면 그게 교육이 되겠냐고요. 그 자리에서 훈육해야 아이가 알아듣고 바뀔 텐데. 근데 이걸 문화 차이로 본다면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지. 단체 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훈육을 안 하면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 왜 저 아이는 안 혼나지. 일관성 있는 훈육이 안 돼요. 그런 게 어려워요. 교육 방식, 문화 차이가 좀 힘들고. 여기 아이들은 5, 6살까지 다 입혀주고, 유모차 타고 오고, 7살인데 밥을 떠먹여 주신다고 해요. 개별 상담 때 그러지 마시라고 하죠. 학교 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야 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죠. 저희 역할이 그것을 자꾸

설득해 나가야죠. 그것을 설명하고. 이해를 도와야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서서히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겠죠. 종교 문화적으로 예방주사를 안 맞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건 지침보다 교육으로 접근해야 해요. 예방 접종을 한국에서는 해야 합니다.

(D어린이집 면담기록)

②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학부모와의 관계 형성에서 장애물은 학부모의 언어능력 부족과 참여 시간 부족이다. 유아교육기관 행사를 개최하면 아버지는 일하러 가기 때문에 거의 참여가 어렵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강의를 이해하거나 교사와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갖기 때문에 참여를 꺼린다.

어머니들이 '나는 말 못하니까 안 가요'라고 하셔요. 그래서 부모 참여도 낮아요

(C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언어장벽은 다문화유아교육기관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로, 번역기를 사용하여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구체적인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고 하였다.

아무래도 언어 때문에 힘들죠. 엄마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설명을 여러 번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번역기를 사용하죠. 어머니들이 못 알아들으시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정통신문 낼 때 번역기로 다른 언어로도 설명이 나가요. 다수가 있는 반의 경우에 그 언어 하나만 번역기 내용으로 가정통신문이 추가되어서 나가요. 주로 베트남이 많으니까 베트남어를 번역에서 밑에 써서 보내요.

(B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참여 유아교육기관은 이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개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A유치원의 경우 여러 행사를 한 번에 모아서 진행하며, B어린이집은 어머니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만들어 어린이집이 계획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처음에는 저희가 부모교육이랑 교육과정 설명회를 했는데 참여하신 분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어떻게든 부모 참여율을 높여야지 저희도 어차피 차려놓은 상이니까 많은 부모님이 보셔야 좋은 거니까 그래서 행사를 막 묶었어요. 하나 할 때 두 개로 그러니까 대부분 그나마 그래도 아이들이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참관 수업 이런 것들은 제가 아이들이 자꾸 오라고 막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오세요. 그러면 오셨을 때 부모 교육 붙이고, 입학식 행사해서 어차피 오실 때 교육과정 설명회 붙이고 해가지고 그냥 있으면 참여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행사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좀 많이 하면서 참여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을 많이 활용을 해요.계속 아이들이 초대장 만들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해 가지고 부모님 안 오면 이모, 삼촌, 고모라도 오라고 해서 계속 말해라 막 이렇게 해요.

(A유치원교사 면담기록)

A유치원에서는 여러 행사를 묶어서 한 번에 진행하고, 유아들에게 초대장을 만들어 학부모에게 전달하게 한다. 이 경우 행사에 대한 유아의 기대를 학부모들이 공유함으로써 참여가 더 높아진다고 한다. B어린이집에서는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함께 모이는 교류의 장을 만들었는데, 학부모의 만족이 높았다고 한다.

> 그리고 이제 다문화들은 제가 다문화를 위해서 그 부모 모임을 했어요. 다문화 부모들만 자조 모임을 했어요. 해서 그 요리 같은 걸 했어요. 요리해서 같이 먹고 가고 아이들이 어릴 때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그런데 아이들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베트남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오면 그 음식을 먹고 엄마들이 집에서 한 번씩 어린이집 우리 한국 음식 해야 그걸 먹어야 되는데도 안 먹여주니까 집에서 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자조 모임을 요리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
> (B어린이집 원장 면담기록)

부모와의 소통에서 번역기나 비공식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계 번역이 부정확하여 의미가 왜곡되거나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아이의 발달 문제나 민감한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 교사-부모 간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가 생길 위험이 있으며, 통역을 도와주는 제3자가 있더라도 전달 내용이 제대로 해석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번역기가 제대로 안 돼요. '아이 때문에 엄마도 스트레스, 나도 스트레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나는 늙어간다.' 이상한 번역이 나와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이의 행동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통역사를 부르거나 한국말을 잘하시는 엄마를 불러서 통역 좀 해 주시라고 근데 그게 한계예요. 감정을 잘 전달을 해야 하는데 놓칠 때가 있어요. 또 제대로 통역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못하잖아요.
>
> (D어린이집 면담기록)

③ 생활 이해부족

부모들이 한국의 교육제도와 학교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녀의 진로·학습·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교사나 방문 한국어교사가 학습 지도뿐 아니라 행정 안내, 학교 절차 설명, 진로 상담까지 대신 수행하게 되어 교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 부모의 정보·언어 역량 부족이 자녀 발달 지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 및 지역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 저희가 학생 진로 사업을 하는 이유도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학습 말고도 많은데 엄마한테 말해봤자 "몰라" 이러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보자 싶어서 진로를 설계하고요. 방문 선생님이 방문하면 학교에서 온 안내문을 모아놓았다가 "이거 왔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물어봐요. 방문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담임 선생님하고도 통화하고. 방문 선생님 본업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니까. 한국어교육 방문교사도 학습만 한다기보다 행정복지센터에 같이

가서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이번에 고교 학점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그거조차도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들한테 그 교육을 해요. 부모님들께 한국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고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직접 해주니까.

(B센터 면담기록)

다문화 어머니들을 한국인 엄마와 연결하는 멘토링 체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 일상생활·행정·양육 정보에 대한 도움을 원하는 부모는 많지만, 한국인 멘토들은 시간 부담과 정서적 피로로 인해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멘티가 점차 자립하도록 돕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멘토 의존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저희가 제안했던 것이 한국인 엄마와 연결하는 멘토링인데 그게 쉽지 않죠. 일반 엄마들도 일하시는 분들이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문화체험 같은 것을 계속 진행하고는 있어요. 자조 모임을 만든다던지. 그분들도 한국 언니가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한 대학에서 멘토 양성과정을 개설했다는데 대학원생들이 멘토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웃 중에 한국인 언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유대관계가 잘 되는 분을 몇 번 보기는 했는데 많지는 않으시고요. 그리고 멘토한테서 어느 정도 자립도 해야 하고, 물어보는 것도 점차 줄여가야 하는데 계속 의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멘토들이 지치세요.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시도했었어요. 주민자치회 같은 데에서 시도해보려고 저희한테 멘토들을 모아 달라고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적십자사에서 함께하는 요리 프로그램으로 짝을 지어주는 사업을 한다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이냐.

(B센터 면담기록)

(4) 행정적 어려움

① 학급 구성의 불안정성

다문화 학급에서는 학기 중간에 입소하는 유아들로 인해 학급 구성원의 변화가 잦은데, 비단 학급 운영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안정된 양육을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노력했다. 중간에 영유아가 1~2년씩 부모를 떠나 외국의 외할머니에게 맡겨지는 경우도 자주 있어, 부모와의 애착 문제, 언어 문제, 한국 영유아교육기관의 부족으로 인한 학교교육 적응의 어려움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런데 낳아서 키우다가 힘들면 아이들을 친정에 보내요. 엄마들이 다 일을 하니까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것은 아는데, 어릴 때 외할머니랑 자라고 오면 아이들이 엄마와의 애착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엄마들에게 많이 얘기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열심히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급적 엄마가 데리고 있게끔 말을 하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한참 어린 중요한 시기에 엄마랑 떨어지니까.

(B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내용)

② 무국적 아동의 보육료 미지원 문제

보육료 지원에 있어 행정적적으로 아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서 유치원은 무국적자라도 지원해 주나 어린이집에는 지원이 없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의 무국적 원아도 보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지원하기도 한다.

> 그래서 시원님들께서는 이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똑같은데, 왜 유치원이 되고 여기는 안 되냐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안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안 되면 시에서라도 그럼 그걸 해줘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해서 5명이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이제 더 추가해 주는 걸로 그렇게 그래도 잘 기다리고 있었더니 또 해 주신다고 또 그러네요.
>
> (C 원장 면담기록)

다문화가정의 영아 교육은 비용 부담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만 3-5세는 일부 지원을 받지만, 영아는 학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많은 가정이 영아반 이용을 포기하거나 잠시 다니다가 중단하게 된다. 그러나 원은 이미 교사를 배치해 둔 상태라 중도 퇴소가 반복되면 운영과 인력 유지에 부담이 생기고, 이는 다시 교육 서비스의 안정성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여기에 영아가 아파서 장기간 결석을 하면 원비 환불을 요구한다.

> 만 3, 4, 5세 유아반은 광주 3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28만 원을 지원받아요. 한국 아이들은 무료지만. 문제는 영아가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학비 지원이 없어요. 교육비는 56만 7천 원이에요. 그걸 다 내기는 부담되는 거예요. 엄마는 돈을 벌어야 하니 집에서 아이를 봐주지 못하고. 영아반 경우는 못 내거나, 한두 달 다니다가 안 다녀버리고. 저는 교사를 이미 유아 인원에 맞추어 채용한 상태인데 아이가 두 달 동안 안 나온다고 있는 교사를 또 나가라 할 수 없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 한 분이 쉬시는 경우는 클 때까지 직접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돈 부담이 크니까. 정부에서 어린이집 영아들 비용을 지원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들이 많을 텐데. 엄마들도, 예를 들어서 겨울철인데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한 15일 정도 아이가 아파서 쉬어요. 근데 원비는 다 내야 해요. 15일 쉬어도. 그게 규정이죠. 돈을 일부 돌려달라고 하거나 아예 안 다녀버리거나.
>
> (F 어린이집 면담기록)

③ 행정의 복잡성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궁금하여 가족센터에 한국어 능력 평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도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구조와 신청 시스템의 언어 지원 부족으로 인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하게 되어 부모에게는 답답함을, 교사에게는 행정 부담을 준다.

> 가족센터에서 한국어 능력 평가를 해줬어요. 선생님이 오셔서. 저희가 평가해달라고 신청해야 해요. 불편한 게, 한국어능력평가를 할 때 부모님들이 직접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신청하느라고

> 일주일 걸렸어요. 그 사이트에 러시아어가 없어요. 저희가 그때 엄마들 다 오라고 해서 핸드폰 번호 인증하고, 그 과정이 엄청 복잡해.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교육부에서 받은 한국어 능력 평가 도구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한국어 능력 평가했어요. 저희가 직접 평가하죠. 도구는 예전에 받았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평가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가족센터에 신청해서 2년 동안 해주셨고, 작년부터는 저희가 해요. 우리가 광산구 센터 담당자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일일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 입력하는 것도 번거롭고, 엄마들이 또 일하시니까. 그래서 홈페이지를 러시아어로만 해주시면 신청이 5분 만에 끝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
> (B유치원교사 면담기록)

이중언어 교사나 상담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크지만, 외국인 교사 채용 시 본국에서 성범죄 경력 확인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지연되어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 이중 언어 교사도 꼭 필요하고. 상담 교사 같은 분도 필요한데 그게 또 어려워요. 저희가 이번에 외국인 한 분을 원에 취업시키려니까 성범죄 조회를 해야 돼요. 근데 본국에 가서 그걸 떼어와야 돼요. 성범죄 조회서를, 그런 거를 신속하게 할 수 없을까.
>
> (D어린이집 면담기록)

미등록 이주가정의 의료 접근성 취약으로 인해 기본 진료조차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비용 처리는 제도상 공제조합을 통해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여 현장에서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 그 결과 교사와 기관이 비용과 행정 부담을 비공식적으로 떠안는 구조가 반복한다.

> 아이들이 아팠을 때. 불법 체류자는 병원에서 돈을 다 내요.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한 5, 6만 원씩 내고 떼어와야 여기 입소가 되니까. 일부 엄마들은 그래도 건강보험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산업체에서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예로 아이 팔이 빠졌다. 내가 데리고 가야 해요. 일단은. 우리나라 아이에게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꽤 들겠죠. 제가 돈을 지불해도, 그 비용을 엄마한테 청구할 수는 없죠. 어찌 되었든 이게 원에서 발생했으니까. 어린이안전공제조합이 있긴한데 서류 올려야 하고, 엄마 계좌번호 받고, 진단서 끊어오라 하고, 사유서 쓰고, 서식도 복잡하고 해서 제가 10만 원 받으려고 그러느니 차라리 원해서 지불하는 게 나아요. 그런 시간에 차라리 우리 애들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죠.
>
> (D 어린이집 면담기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외국인등록증명서 제출 방식의 제도 불일치가 현장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 부담을 초래함을 보여준다. 유치원은 1회 제출로 인정되지만, 어린이집은 매달 서류를 재발급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가정은 건당 비용을 반복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체류 기간과 주소 변동 여부는 서류에 이미 명시되어 있어 실제로는 변동 확인 주기와 제출 요구 주기가 맞지 않은 상태이

다. 그 결과, 가정과 교사가 모두 의미 없는 행정 절차를 반복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 비효율이 이어지고 있다.

> 교육비를 받으려면 유치원은 동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증명서를 받아서 한 번만 제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은 매달 증명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해요. 건당 2천 원이거든요. 엄마 거 주고 아이 거 떼주면 4천 원이에요. 거기 서류에 갱신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체류 기간도 있고. 그럼 그때까지는 안 떼도 괜찮잖아요. 굳이 매달 이걸 뽑아서. 그 집에 계속 살고 있고, 아이가 여기 등록된 상태로 계속 출결을 하고 있고 변화도 없는데.
>
> (F 어린이집 면담기록)

④ 행정 지원 미흡

이주 배경 유아의 한국어 지원이 학생 수 변동과 예산 기준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오후에 한국어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 인건비가 지원되지만, 유아 수가 줄어들면 지원이 중단되었다. 면담 참여 교사는 자신이 직접 방과후 시간에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했다. 이는 교사 재량이기 때문에 교사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로 인해 어떤 유치원은 전문 강사 중심의 체계적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곳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부담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 한국어 반을 오전 오후로 운영해요. 오전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제가 운영하고, 오후 방과후 시간에는 한국어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한국어 수업을 하고요. 한국어를 가르쳐 본, 자격증이 있는 한국어 강사를 뽑으라고 교육청에서 돈을 주셔요. 그건 좋아요. 근데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은 돈을 안 주시거든요. 작년까지는 오후 한국어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했는데 올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돈을 안 주셔서 올해는 강사 없이 그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어요. 선생님 재량이라 안 하는 선생님도 있겠고요. 유치원마다 질이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마다 한국어 교육을 따로 해주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하는 선생님도 있으면.
>
> (F유치원교사 면담기록)

아동 수에 따라 이중언어 강사 인건비 지원이 달라지는데 현원이 줄어들어 강사 수가 감소하였고, 교실 지원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 상황을 보여준다. 이중언어 강사 한 명이 여러 교실을 오가며 통역과 놀이 지원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상호작용의 연속성과 교육적 질이 저하된다. 이 문제는 등·하원 시간, 부모 상담 시간에 보호자와의 소통을 어렵게 한다.

> 이중언어 선생님은 작년에는 다섯 분이었는데 올해는 애들이 줄면서 교육청 예산도 네 분만 고용할 수 있게 줄었어요. 네 분이 하루 2시간씩 근무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분이 두 시간 하고, 다음 분이 두 시간 하고. 현장 체험학습이 있으면 더 근무를 하셔야 하거든요. 다섯 분이었을 때는 비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2시간씩만 근무하시니까 두 시간 동안 한 분

> 이 이 교실 저 교실을 왔다 갔다 해요. 한 교실에서는 자유 놀이를 하고 있고, 옆반에는 수업을 하고 있어서 두 교실 모두 이중언어 강사가 필요한데 한 분이니까. 계속 이방 가셨다가 저방 가셨다가 해요. 수업을 통역하시다가 영상 틀어주는 동안 잠깐 다른 반에 가고. 공백이 없어야 아이들이 놀이할 때 같이 관찰할 수도 있고. 바로바로 통역해주고, 우리도 바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
> (F유치원교사 면담기록)

우리말과 자국어가 함께 쓰인 그림책의 지속적 확보가 어려웠다. 일회성 지원으로 제공된 교재는 추가 구입 경로가 불분명하여 재확보가 불가능하다. 그 결과, 교사는 아이들의 모국어·문화 연결을 지원하고 싶어도 자료 접근성이 제한된다. 다문화유아 학습자료의 유통·공급 체계가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 동화책도 번역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림책 한 권을 보여주며) 이 책은 캄보디아 전래동화인데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구청에서 지원해서 제작한 거예요. 나누어주고 한 권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걸 구하고 싶어도 루트가 없어요.
>
> (F 어린이집 면담기록)

(5) 사회적 인식의 문제

① 일부 어린이집의 외국인 아동 기피

연구참여자들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아교육현장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특히 비다문화가정의 학부모들은 교사가 다문화가정 유아들의 지도에 좀 더 집중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자녀가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도 있거나,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여 중도이탈하기도 한다.

> 한국인 엄마들 중에는 자신들이 역차별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행사때 이럴 때 와서 보면 그분들이 너무 시끄럽고 많다고 지적하거든요. 말하자면 한국인 어머니가 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들이 왁자지껄하니까 다른 엄마들 중에는 자신의 아이가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 때문에 프로그램 같은거 할 때 느리게 하거나 수준을 낮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
> (B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② 지역사회 무관심

불법체류 유아의 유치원 입학 여부가 기관장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이들이 돌봄 공백과 방치 위험에 놓이지만, 제도적 안내와 지원체계가 없어 불법체류 유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연계하기 어려운 점이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불법 체류자를 받을지 말지는 교장 선생님 재량이시거든요. 저희 학교는 불법 체류자는 아예 안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아이들은 아는 사람한테 맡겨지거나. 엄마 아빠 따라다니거나, 이 집에서 저 집 다니고. 그 아이들을 구제해서 유치원에 보내면 아이들 수가 조금 더 늘어나고 좋을 것 같은데 불법 체류자라서 아예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는 분도 계시고.

(B유치원교사 면담기록)

③ 사회적 인식과 차별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결혼이민자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인력의 유입으로 인한 현상이다. 차별적 시선에는 외국인이 증가하여 한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의 세금이 그들을 위해 투입된다는 쓴다는 불확실한 정보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유아교육현장의 종사자들은 차별이 외국인 가정에게도 한국에 대한 피해의식과 부정적인 인식을 주며 비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다문화 가족이 갖는 문화의 풍부함을 나눌 기회를 잃게 만든다고 하였다.

어차피 우리가 사회가 거의 다문화 없이는 안 돌아갈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 그 사람들하고 결국은 잘 융화해 가야 되는 것들인데 영유아기에 그 아이들하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어떤 차별이나 뭐 아이들이 뭐 세 살 네 살짜리가 걔들이 뭐 베트남에서 왔다, 뭐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조금 그럴 때 이렇게 차별하면 정서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라서 어릴 때 그런 경험은 되게 무시 못 하잖아요. 조금은 더 이렇게 융화를 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에 좀 제가 많이 설명했고, 부모님 중에서 좀 사고가 트인 사람들은 “저희 전혀 그런 거 괜찮아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B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초반에는 그래서 외국인 많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배울 게 없지 않냐 거기 가서 한국어도 못하는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우리 아이가 다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편견이 또 있으시더라. 그래서 그런 또 편견을 개선하는 데 또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중략) 그래서 저희는 히잡 쓰고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히잡 쓰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헤나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오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은 그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어머 예쁘게 그림 그리고 왔네. 하는데 얘들아 여기 와봐 여기 팔에다 그림 그려서 너무 예쁘지? 이렇게 하면 아이들 또 한국인 아이 아까 좀 거부감 가졌던 어머니도 그 아이도 엄마 선생님 너무 예뻐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여기 스티커로도 해볼까? 저도 그걸 사서 바디페인팅도 한단 말이에요. 페이지 페인팅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아이가 그런 외국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다양성을 더 많이 갖고 있어서 그 아이들이 갖는 잇점이 좀 큰 것 같아요.

(D유치원 교사 면담기록)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유아가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오해와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얗고 뽀얀 피부는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까만 피부는 본 적도 없고. 강산구에 사는 한 아이가 학교에서 언어도 안 되고요. 피부도 까맣고. 이 아이가 폭력으로 문제가 됐었어요. 이 아이가 폭력을 휘둘려서 다른 아이들을 때렸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갔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오해를 사다 보니까 너희들이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하면서. 저희가 그 반 아이들을 모아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열어놓고 아이들하고 동그랗게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문화 이해 교육'이라고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있어요.

(B센터 면담기록)

2. 다문화 보육현장의 요구사항

(1)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 접근성 개선

① 언어 발달 지원을 위한 요구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는 일과 시간에 다문화 영유아의 언어지도를 위해 노력하지만, 전체 학급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언어지도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이들을 위한 특별 학급 개설을 요구하였다.

제가 어떻게든 한국어를 교육해보려고 사운드 북으로 이렇게 하고 단어 카드로 했지만 제가 이 애하고만 일 대 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주위에 있는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등한시되고 정말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채 한 분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10분도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아이도 부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한국어 학급이 개설되고 이 학교 자체 안에 이렇게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면 제가 떠나고 다른 교사가 오더라도 그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교사가 겪는 혼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D유치원 교사 면담기록)

언어발달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이 낮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어렵게 되어 불필요한 갈등을 겪거나, 또래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그 부분은 꼭 지원을 받았으면 해요. 확실히 이 아이들이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몸으로 거칠게 표현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런 베트남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사납게 하니까 아이들이 피하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싫은데 말로 잘 표현 못하니까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것을 교사가 계속 말로 표현하게 지도하면 좀 좋아지기 하지만, 1:1로 붙어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가정에서도 자신들이 잘 못하니까 한글을 꼭 떼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사가 아이들한테 1:1로 못하잖아요.

(B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② 서비스 접근성

가족센터가 구 내 한 곳에만 위치해 접근성이 낮고 이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역별 분소 설치를 통해 자녀 생활 지원서비스와 상담·돌봄 지원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 기반 지원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 가족센터가 구에 하나씩이에요. 복지관은 북구 안에도 7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뛰어난데 가족센터는 한 곳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이 서비스를 다 응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분소라도 좀 생겼으면 좋겠다. 자녀 생활 지원 서비스는 방문서비스이지만 아이들이 센터에 와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워요. 접근성이 떨어져요. 센터가 북구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북구가 엄청 넓다 보니까요. 지역별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소가 있으면 좋겠다.
>
> (B센터 면담기록)

(2) 보육료 및 예산지원 제도 개선

① 보육료 지원

다문화 유아의 국적 미취득 여부에 따라 보육비 지원이 제한되면서 유치원에서는 원아 수로는 인정받지만, 실제 재정 지원은 받지 못해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원장이 원비를 감면하거나 무료로 받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기관 운영과 교사 인건비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 아이들 보육비 지원이에요. 이 분들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 보육비 지원이 되지 않거든요. 유치원은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원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원비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지원이 없어요. 이름을 올리면 인원수로 인정은 해주지만 지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원아의 50% 이상이 다녀야 교사보수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원아 수로 인정은 해주니까. 그래서 또 인원이 적으면 그나마 받지 못하면 큰일이니까 이 부분에서 원장이 깍아주어요. 아이들 보면 불쌍하죠. 사실. 와서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을 안 받아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일나가고 집에서 그냥 있어야 하잖아요.
>
> (B어린이집 원장 면담기록)

② 예산지원

어린이집에는 상시적인 이중언어 통역·지원 인력이 없다. 통역이 필요할 때마다 7세 아동이나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비공식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소통의 정확성과 관계 부담이 발생한다. 전문 통역사를 사용하려 해도 비용 지원체계가 없어 기관이 감당하기 어렵다.

> 유치원은 이중언어 교사가 있는데 우린 없어요. 급하면 7세 애들 불러서 통역해줘라.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러 왔을 때 “엄마 잠깐만 도와줘요.” 엄마들도 본인 일을 하는 분들이라 매번 부탁하기 어려

> 워요.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 오픈 시간이 6시 40분이에요. 이 동네 어린이집이 다. 통역사를 돈 주고 쓰는 것도 시간당 3만 원이거든요. 그런 지원비가 없어요. 저희는 이중언어 교사가 필요하고요. 매일 도와주시는. 4시간 보조식으로 4시간 정도라도. 왜 그러냐 하면 교실에 가서도 이렇게 교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지도해 줄 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
> (D 어린이집 면담기록)

부모의 출근 시간이 매우 이른 환경에 비해 어린이집의 등원 지원 시간이 맞춰져 있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백 시간 동안 아이 돌봄은 가족·지인에게 사적으로 아이를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가정 부담이 크다. 구청의 조기 개원 보조는 일부 기관에만 적용되어 지원 형평성이 낮다.

> 6시 40분에 오픈하는 것도 이곳 어린이집의 특징인데. 엄마 아빠가 나주에 배 따러 간다고 하면 6시에 차를 타요. 우리는 6시 40분 오픈이잖아요. 그 사이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네트워크 안에서 다른 사람이 그 아이를 봐주고 등원을 시켜주는 거죠. 시간당 1만 원 정도 주나봐요. 이분들은 정확하거든요. 다섯 시 반에 오픈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구청에서 보조를 해줘요. 영아 보조를 해줘요. 저희 보고도 5시 반에 오픈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5시 반에 실질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없어요. 6시 반 오픈부터 네 시간만 도와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이 지역 어린이집들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
> (F 어린이집 면담기록)

한국어 교사 지원이 학생 수 변동과 예산 기준에 따라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보여준다. 오전·오후로 한국어반을 구성하도록 전문 강사 인건비가 지원되지만, 유아 수가 줄어들면 지원이 중단되어 결국 교사 개인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에 어떤 유치원은 전문 강사 중심의 체계적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지만, 다른 곳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부담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 한국어 반을 오전 오후로 운영해요. 오전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제가 운영하고, 오후 방과후 시간에는 한국어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한국어 수업을 하고요. 한국어를 가르쳐 본, 자격증이 있는 한국어 강사를 뽑으라고 교육청에서 돈을 주셔요. 그건 좋아요. 근데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은 돈을 안 주시거든요. 작년까지는 오후 한국어 강사를 외부에서 초빙했는데 올해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돈을 안 주셔서 올해는 강사 없이 그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어요. 선생님 재량이라 안 하는 선생님도 있겠고요. 유치원마다 질이 다를 수 있어요. 유치원마다 한국어 교육을 따로 하는 선생님도 있고 안 하는 선생님이요.
>
> (F유치원교사 면담기록)

다문화 이해·수용 교육 필요성이 높음에도 예산 축소로 인해 일회성·단기성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보여준다. 예산이 소진되면 기관이 자체 예산을 전용하거나 학교가 별도로 비용을 마련해야 하

므로 지원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방문 한국어교육·부모교육·자녀생활지원도 지원 횟수와 기간이 규정으로 제한되어 있어 장기적 발달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 가장 필요한 게 다문화 이해 교육이에요. 다문화 이해나 수용성이 학생들에게 가장 높거든요. 그렇지만 횟수나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학교를 1년에 20에서 30회 정도 돌고 있거든요. 학교마다 일회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이유에는 예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예산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기본 사업 예산을 조금 잡아서 이거는 꼭 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끌고는 가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요. 저희 예산이 소진되면 학교에서 예산을 마련하셔서 저희에게 요청해요. 방문교육 서비스도 부모교육은 40, 한국어교육은 80회, 자녀생활지원 80회에요. 길어야 1년 정도씩 밖에는 지원을 못 받는 거라. 주 두 번씩 방문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 교육이 끝나면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더 받고 싶다, 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많은데. 규정상 정해져 있는 기간만 제공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아이들 생애 지원이 아니라 잠깐만 주어져요. 심리 상담 지원도 그렇고. 교육청에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
> (B센터 면담기록)

(3) 다문화 아동 지원체계 구축

① 부모 대상 한국어 교육

다문화 부모 대상 한국어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모국어-한국어 병기 그림책과 영상 등 가정 연계형 이중언어 문해 자료가 되어 부모의 언어 참여를 실질적으로 돕고 가정 내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 두 살 세 살짜리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한국어를 쓰면 엄마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폴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엄마한테 하면 못 알아먹는다고 무시하기도 하는데 이런 그림책이 필요해요. 모국어와 한글로 된 그림책인데 모국어와 한글공부, 문화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QR로 부모가 아이와 함께 동화책 보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줘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설명을 해주죠. 아이들이 설명도 하고, 그러면 엄마도 배우고. 같이 배우는 거죠. 이런 그림책은 좋은 방법 같아요. 애들도 엄마한테 설명하려면 자세히 봐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공부도 되고.
>
> (D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한국어를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가정통신문을 이해하거나, 교과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중언어 교과서를 제작하여 보급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특히 자녀가 중도입국한 경우 수업내용을 알지 못하여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면 중도이탈의 원인이 된다.

> 저는 중도 입국 자녀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봐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를 이제 좀 번역본으로 해서 한국어와 밑에 모국어 말하자면 베트남어라든지 중국어를 이렇

게 같이 있는 교과서를 좀 제작을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좀 수업에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학교교육 수준이 높아서 조금만 놓치면 아예 학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A센터 사례관리사 면담기록)

② 모국어 교육

다문화유아교육이 한국어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유아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잃어가는 문제가 나타난다. 모국어는 정체성과 가족 소통의 자산이지만, 현재 정책은 한국 사회 적응에만 집중되어 있어 모국어를 유지할 여지가 부족하다다. 주말 모국어 수업 등이 있으나 부차적이고 지속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언어·문화 유지에 한계가 있다. 다문화유아가 한국 적응만을 중심으로 교육받는 현재 체계에서 벗어나, 모국어를 유지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중언어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우리나라 다문화 언어 교육은 한국어에 집중됐기 때문에 일찍 온 유아나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 나라 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에요. 모국어를 잊어버린 아이들이 더 많이 있어요. 자산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한국어를 배워라, 한국 문화를 빨리 배우라고만 하지 자기 나라 것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안 되고 있죠. 다문화 사업도 모국어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에는 초점이 안 맞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모국어 수업이 있긴 해요. 아이들이 주말에 나와서 베트남어를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러시아도 배워요. 여기 센터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전체 사업으로 내려와 있어요. 목적은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 모국어를 쭉 유지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한국에 빨리 적응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죠.

(B센터 면담기록)

③ 다문화 교육의 교육과정화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필수교과로 지정하고, 일상에 통합하기 위해서 가족센터·다문화 강사·지역 커뮤니티 등 지역 자원을 교육청, 학교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다문화 부모 참여 및 문화 경험 활동을 통해 학교 공동체가 타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다문화 이해 교육 사업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정도 해요. 일회성 말고, 일상에 스며드는 교육이어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예 그냥 과목 안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문화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문화 사람을 만날 기회는 많아요. 지역마다 가족센터가 있고,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님이 계시고, 청소년 선생님들이 지역 파견되어서 그 나라 문화를 알려주고 의상을 입어 보고. 다문화 엄마들 초청해서 하는 수업도 있거든요. 그거는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B센터 면담기록)

④ 가족센터와 유아교육기관 연계

유아교육 기관과 가족센터 간 연계가 유아교육기관별 재량과 인식 차이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기관과 가족센터 간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소통·정서·가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센터 서비스를 매뉴얼 기반으로 의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협력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교육청하고는 저희가 연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유아 기관하고는 개별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있고, 원장님 마인드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랑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청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서. 그리고 유아교육 기관용 다문화 매뉴얼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소통이 힘들 때, 심리 정서가 힘들었을 때 가족센터의 어떤 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더 적극적으로 연계를 하잖아요. 모르시는 선생님이 많아요.
>
> (B센터 면담기록)

(4) 현장 기반 정책

① 기관별 상황에 따른 실효적인 정책 필요

다문화유아 다수가 재원하는 유아교육기관에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일회성으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정해서 사업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 저희가 예산으로 이제 한 따로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받는 건 없어요. 없는데 좀 안타까운 게 도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에 다꿈 다문화 정책 유치원 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다문화 비율이 엄청 높잖아요. 저희는 90%란 말이에요. 근데 첫해에는 다른 유치원들이 관심이 없었나 봐요. 현장에서 막 사업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넣었더니 저희가 다문화 정책 유치원이 돼서 돈이 한 700만 원 왔어요. 그걸로 아이들 다문화 의상도 사고 놀잇감도 사서 다문화 교육을 더 많이 풍요롭게 운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가 다문화 정책 유치원에서 탈락했고요. 지원 유치원이 되더라구요. 그러더니 올해는 급기야 지원유치원도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희는 다문화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 사업에서 아무것도 안 되나 그랬더니 그 사업이 이제 널리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기관들을 다 신청을 하니 다른 기관들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를 배제했다는 거예요. 여기만큼 우리가 대상이 아니면 누가 돼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막 이제 부모교육까지도 다 계획을 해왔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안 온다고 하니까 이 돈을 그럼 어디서 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문화 교육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 저희는 이 다문화 교육을 놓을 수가 없는 유치원인데 그 기준을 확고하게 마련해서 그렇게 막 사업을 돌아가기 식으로 줄 게 아니라 진짜 아예 여기에 그냥 정치 유치원 이름을 붙여서 그냥 여기는 따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어 교사도 더 있어야 하고 그런 예산도 더 있어야 되는 그 특별한 유치원 집단으로 구분해 주지 않고 이렇게 1년에 사업을 한 번 주고 네 그게 막 보장도 없으면은 여기는 특별하게 하기 어렵죠.그러니까 다른 선생님 오셔도 그러면 그냥 뭐 돈이 없으면 기본만 하고 말자 이렇게 되면서 열의가 꺾이죠.
>
> (D 유치원교사 면담기록)

A유치원의 경우 원비 지원 이외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다문화 가족이 선호하는 부모 참여 활동이나 문화 활동 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교사가 힘들게 마련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해서 다문화교육에 열의가 상실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실제 다문화영유아들이 많이 재원하는 기관 중심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B 원장은 다문화교육에 대한 열의로 다문화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다문화 원아가 많지 않은 기관의 교원이 참여하였기에 정보를 나누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연구자 : 다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B어린이집원장 : 2022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했어요. 교사팀이 있었고, 원장팀이 있었는데, 저는 교사를 내보내지 않고 제가 원장팀에 나갔어요.
연구자: 참여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B어린이집원장 : 우리 어린이집이 다문화 아이들이 많은데 다른 곳은 다문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원장님이 7명 있었는데 한 곳만 다문화 아이들이 많고 다른 기관은 다문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다문화 현황을 알려주었어요.
(B 어린이집 원장 면담기록)

② 수월한 행정처리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행정·소통 체계가 다르지만 안내문 등의 번역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교사 역시 반복적인 설명과 안내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안내문 같은 것들을 번역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교는 하고 있는데 학교 재량이잖아요. 아직은 유치원은 안 되고. 많이들 하시는데 재량이라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유치원 아이들도 연습하잖아요. 엄마들도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 엄마들도 놀랄걸요. 초등학교 갔는데 시스템이 다 달라. 그리고 어디 뭐 앱으로 들어가서 봐야 하고, 뭔가를 해야 하고. 근데 유치원도 교육청 소속이라 비슷할 것 같지만 어쨌든 엄연히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내문을 외국어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B센터 면담기록)

다문화유아가 많은 유치원에서는 비자 기간 확인, 체류 연장 안내, 학비 지원 서류 준비 등 외국인 가정을 위한 행정 업무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교사 간 인수인계 시 메모나 안내서 형태로 정리해 공유한다면,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선 없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행정 문제가 다른 유치원하고 다르잖아요. 비자 기간 만료라든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라든가 그런 기초적인 거를 조금 더 잘 알아야 돼요. 한국 아이들처럼 똑같이 유학비를 신청해요. 학비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서류가 되게 많아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외국인들은 체류 기간도 봐야 하고, 만료되기 전에 또 연장하러 가시라고 얘기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인수인계

할 때 메모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만약에 다문화를 하신다면 이런 행정적인 거랑,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적어서 미리 배포하면은 조금 더 현장에서 안 부딪히고 미리 알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유치원교사 면담기록)

여기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놀이터도 없어요. 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놀이터 하나인데 센터에 뭔가 접수를 하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님한테 센터장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외국인 엄마들 놀이터 한번 가고 싶은데 등본 처음에는 주민 신분증 갖고 와야 되고, 근데 이분들이 신분증이 여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비자가 만료된 사람은 그거 보이기 싫은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랑 손잡고 놀데도 없어요.

(A 어린이집원장 면담기록)

③ **사회통합 및 인식 개선**

다문화 아동과 외국인 가정에 대한 언어·교육 지원과 생활·경제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지역 기반으로 접근성을 높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막 국회의원들도 어디서 만나면 외국인들 왜 지원을 여기는 안 해주냐 좀 해줘라 이렇게 하면 애기들이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표가 안 되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그게 지금 폐단인 거야 이 나라가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중략) 4대 보험은 요즘 기업들이 외국인을 써도 그 4대 보험을 다 가입을 해주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의 소비를 이 지역에서 하잖아요.그 먹을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거의 마트에서 이용을 하니까, 그럼 여기서 돈을 쓰고 그들이 쓰는 돈으로 한국인이 장사도 하고 먹고 살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세도 살고 하니까 방도 세를 놓죠. b

(A 어린이집 원장 면담기록)

Ⅳ. 결론

이 연구는 다문화 영유아 교육 현장이 언어·발달 지연, 놀이 중심 교육의 한계, 학부모와의 문화적 마찰, 복잡하고 불안정한 행정 체계, 사회적 편견이라는 다차원적인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는 영유아가 증가했고, 무국적 아동 및 영아반에 대한 보육료 지원 공백이 심화했고, 예산의 불안정성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것이 핵심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에 다문화 영유아의 교육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궁극적으로 포용적인 사회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5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1. 언어 및 발달 지원 인프라 혁신 및 적시성 확보

다문화 영유아의 언어발달 지연은 학업 성취뿐 아니라 또래 관계, 사회·정서 발달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기 개입 시스템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① '언어 발달 긴급 지원 시스템' 도입 및 국적 불문 지원

언어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은 유아교육기관의 신청만으로 3개월 이내에 전문 진단 및 초기 1:1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우선권을 부여한다. 특히,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국적 미취득자(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확대한다. 이는 현재 1년 반에 달하는 서비스 대기 기간 문제를 해소하고, 중도입국 유아에게 시급한 한국어 습득 결정적 시기를 보장할 수 있었다.

② 다문화유아 다수 기관 대상 '이중언어 보조 인력' 상시 배치

다문화유아 비율이 높은 기관에는 아동 수 변동과 무관하게 이중언어 또는 한국어 지도 전문 파트타임 강사를 상시 배치하여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들은 1:1 한국어 지도는 물론, 놀이 상황에서 유아의 복잡한 감정과 의도를 통역하여 교사의 '눈치껏 개입' 한계를 해소해야 한다. 담임 교사의 지도 한계를 해소하고, 언어 문제로 인해 놀이 확장이 어렵거나 교사 주도적 활동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놀이 중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모국어 교육 및 이중언어 환경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

모국어 발음이나 표현이 부족한 유아를 위해 주말/방과 후 모국어 수업의 예산 및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모국어-한국어 병기 자료(그림책, 영상)를 부모 교육과 연계하여 개발 및 보급한다. 모국어 유지가 개념 이해와 한국어 학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모국어 능력을 상실하는 문제 방지를 통해 유아의 정체성과 가족 소통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

2. 놀이 중심 교육 실행 지원 및 교사 전문성 강화

언어장벽으로 인한 놀이의 제한과 교사의 심도 있는 개입 어려움을 해소하여, 다문화유아가 또래와의 융합을 경험하고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① '다문화 놀이 촉진 및 정서 지도 연수' 의무화

교사가 다문화유아의 비언어적 신호, 정서적 요구 및 문화적 오해로 발생하는 또래 간 폭력/갈등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심화된 통합 교육 연수를 정기적으로 의무 운영한다. 교사 개입 질을 높이고, 언어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정서적 안정과 또래 융합을 촉진한다.

② '지역 연계 다문화 통합 체험활동' 예산 확보 및 외부 활동 지원

도시 외곽 다문화가정이 접하기 어려운 한국의 놀이 문화나 환경(키즈 카페, 뮤지컬 등)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활동 전용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의무화한다. 바깥 활동을 통한 신체 에너지 발산이 또래 간 다툼을 줄이고 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중도입국 유아의 한국 문화 이해도를 높여 학교 적응을 도울 수 있다.

3. 학부모 협력 및 문화적 차이 해소를 위한 가정 연계 강화

문화적 양육 방식 차이로 인한 생활지도 어려움과 부모의 낮은 한국 사회 이해도로 인한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여 가정과 기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① 다국어 전문 통역 지원 및 커뮤니케이션 제도 고도화

번역기계 오류와 감정 전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감한 발달 상담 시 전문 통역사 이용 예산을 지원하고, 모든 가정통신문 및 학교 안내문에 대한 다국어 번역 지원을 제도화한다. 부모의 언어장벽 문제를 해소하고, 훈육 방식, 예방 접종 등 문화 차이로 인한 민감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가정의 신뢰를 구축한다.

② 부모 대상 '한국 생활 및 제도 이해 교육' 의무화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학습·학교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함께 양육 문화(식습관, 훈육)과 한국의 교육제도 등(진로, 고교 학점제)의 이해 제고를 위해 부모 언어 및 문화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모의 정보·언어 역량 부족이 자녀 발달 지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습관 차이로 인한 교사의 정서적·노동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③ '다문화-한국인 멘토링' 체계의 안정적 운영

일상생활·행정·양육 정보 획득을 원하는 다문화 어머니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축하되, 멘토의 정서적 피로 및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동 지원금 지급 및 멘티가 점차 자립하도록 돕는 단계별 지원 구조를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엄마와의 연결을 통해 부모의 생활 이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도모한다.

4. 제도적 불평등 해소 및 행정 효율화

국적, 기관 유형, 아동 수 변동에 따른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교사에게 집중된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여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국적 및 기관 유형 통합

무국적 아동이라도 유치원/어린이집 구분에 관계 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관련 법령 및 조례를 통일하고, 특히 영아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영아기 교육 접근권 격차를 해소한다. 국적에 따른 보육권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한 다문화 영아의 중도 퇴소나 교육 포기를 방지하여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② 유치원-어린이집 행정 절차 통합 및 간소화

외국인등록증명서 제출 주기를 유치원처럼 1회 제출로 통합하고, 한국어 능력 평가 신청 시스템에 다국어 지원 기능을 의무 탑재하여 가정의 비용 부담과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 반복적인 서류 발급 비용(건당 2천 원) 및 교사의 과도한 행정 업무 대행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③ 인력 및 예산지원의 지속성 및 전문성 보장

다문화유아 비율이 높은 기관을 '다문화 특별 지원 기관'으로 지정하고, 아동 수 변동과 무관하게 한국어 강사 인건비 및 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교사(이중언어 교사)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간소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산 불안정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및 교사의 열의 상실을 방지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의 신속한 충원이 가능하다.

5.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포용적 문화 확산

유아교육 현장에서부터 사회 전반의 차별적 인식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① 미등록 이주 아동 보육권 보장 제도화 및 긴급 안전망 구축

불법체류 아동의 입학 수용을 기관장 재량이 아닌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비용 처리 간소화 및 공공 의료 연계를 지원하여 이들을 돌봄 공백에서 구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관이 비공식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할 수 있다.

② '다문화 포용·감수성 교육' 정규 교육과정 통합 및 학부모 연수 의무화

다문화유아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학습하는 다양성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통합하고, 비다문화 학부모 대상으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다문화가 갖는 문화적 풍요로움을 강조하는 연수를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비다문화가정의 아동 이탈 및 차별적 시선을 해소하고, 유아기

부터 다문화 이해 교육의 일상화를 통해 건강한 정서발달과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

③ 다문화가정의 '사회 통합 공감 캠페인' 실시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고 세금을 축낸다'는 등의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소비 활동, 근로소득세 납부 및 지역 경제 기여도를 데이터 기반으로 홍보하는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는 사회적 차별의 근거가 되는 불확실한 정보와 편견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적 구성원임을 강조하여 융화를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은주(2018). 다문화아동이 높은 비율의 학급에서 교사의 스트레스와 대처전략. **한국유아교육연구, 38**(2), 77-102.

박미정(2016). 다문화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인식하는 어려움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36**(4), 45-67.

박대식, 마상진, 권인혜 (201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이선화(2021).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제 실행 간의 차이 분석. **유아교육연구리뷰**, 25(3), 113-130.

이주연, 최지훈 (2021). **전북농어촌지역 영유아 보육발전 방안**. 전북연구원.

이혜진(2019). 다문화유아의 언어·정서 발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다문화유아교육학회지, 19**(1), 25-46.

정연숙, 박지윤(2020). 다문화학급 교사의 감수성과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지원. **아동학연구**, 41(1), 89-108.

조영달(2015). **질적연구방법론: 학교와 수업 연구의 새 지평**. 서울: 드림피그.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주제발표 2

유아 세계시민역량 강화 방안

발표자

문무경 연구원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이상옥 연구원 | 충남대학교 세계시민교육 연구센터

2025.11.11

2025
영유아교육 포럼

unesco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유아 세계시민역량 강화 방안 연구

김종훈 실장(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박환보 교수(충남대 교육학과)
문무경 박사(서울대 교육연구소)
이상욱 박사(충남대 세계시민교육연구센터
이지현 전문관(유네스코 아태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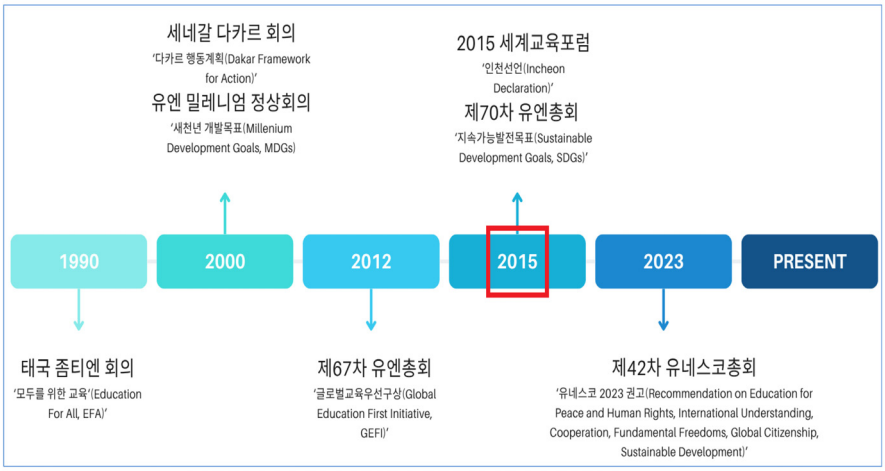
유아 세계시민역량 강화 방안 연구

unesco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Page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II	연구의 배경	7
III	국외 유아 세계시민교육 사례	11
IV	국내 유아 세계시민교육 현장 사례	13
V	유아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6

세계시민교육의 정의

- **정의:** 학습자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기술·가치·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패러다임(유네스코 아태교육원, 2014: 27)
- **특징:** 인지적 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을 강조
- **등장 배경:**



세계시민교육 총괄기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 **연혁:**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간 협정에 따라 2000년에 설립
- **사명:** 유네스코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증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세계시민교육 사업



unesco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 변화에 따른 역량의 확대:
국가 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이 지식/기술을 넘어 **공존을 위한 가치, 태도, 실천적 행동**으로 확장되고 있음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
인간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는 사회적 가치와 태도 내면화에 지대한 영향
다양성 존중 및 국제적 책임감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기회 확대가 필수적임.

유아교육현장의 정책적 공백 및 어려움:
현재 세계시민교육은 초·중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영유아 교육에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유아 교사는 **교육 내용/자료 부족 및 역량 한계**로 인해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목적

유아교육 관계자가 인식하는 **세계시민역량의 정의와 실천 양상(사례) 분석**.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놀이 중심 세계시민교육의 정책적 방향 제시** 및 전략 마련

II

연구의 배경

unesco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I 연구의 배경

• 국제기구의 세계시민교육(GCED)프레임 워크

기관	핵심 영역 (3가지 축)	유아 대상 시사점
유네스코 (UNESCO)	**1. 인지적 영역** (지식 및 이해, 비판적 사고)	다문화, 환경 등 세계적 문제에 대한 초보적 인식,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기초 능력
	2. **사회·정서적 영역** (공감, 연대, 다양성 존중)	자기-타인-세계로 확장되는 **존중과 공감의 태도 형성**
	3. **행동적 영역** (책임감 있는 행동)	환경 보호, 규칙 준수 등 공동체를 위한 **책임감 있는 일상생활 실천**
OECD (학습 나침반 2030)	**변혁적 역량** 강조 (Transformative Competencies) (학습자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행위 주체성** 강조)	1. 새로운 가치 창출 (창의적 문제 해결) 2. 갈등과 딜레마 해소 (대화와 타협) 3. **책임감 갖기** (지구 존중 실천)

II 연구의 배경

• 유아 세계시민역량 구성요소

유네스코, 옥스팜 등의 모형을 유아 발달 특성에 맞춰 통합한 구성요소

핵심 영역	세부 구성요소(유아 발달 수준 고려)
지식 및 이해	자기이해 및 다중 정체성 인식
	다양성 및 상호의존성 이해
	글로벌 이슈 인식
가치 및 태도	존중과 공감
	윤리 및 책임 의식
	참여 및 연대 의지
기능 및 실천	의사소통 및 협력 기술
	비판적 사고 및 문제해결
	주도적 실천 (행동)

II 연구의 배경

• 국내 유아 세계시민교육 연구 동향 분석

유아 세계시민교육 연구 동향 및 교육과정 분석 연구

연구 유형	주요 내용	연구 결과 및 시사점
개념 정립 및 측정	문헌 분석 및 델파이 조사를 통한 **유아 세계시민성의 개념 정의** (이해하기, 존중하기, 함께하기의 3요소).	세계시민성을 **놀이와 일상**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실천하는 시민적 존재 방식**으로 정의.
도구 개발	유아 세계시민의식 평정척도 및 유아교사 세계시민교육역량 측정 **척도 개발**.	프로그램의 **객관적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제공.
동향 분석	유아 세계시민교육 연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및 **SDGs**를 중심으로 **환경, 인권, 다문화, 평화 교육을 포괄**하는 **통합적 방향**으로의 확장 확인.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교육 내용의 풍부화 시사.
교육과정 연계	2007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성 분석 및 **한-일 비교 분석** (역할, 상호작용 강조 vs. 가치 태도 vs. 실천 기술).	**누리과정 내 잠재된 연계 기반** 확인 및 유아-초등 교육과정 간의 **계속성과 계열성** 확보 필요성 강조.

II 연구의 배경

• 국내 유아 세계시민교육 연구 동향 분석

유아대상 세계시민교육 효과성 및 요인 관계 분석 연구

연구 유형	주요 활동 내용	연구 결과 및 시사점
효과성 검증	숲 체험 활동, 평화 그림책 만들기, 기독교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주제 및 접근법과의 융합**.	유아의 **인성, 세계시민의식, 공감능력** 등 **다면적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경험 기반 연구	가상 국제교류 활동을 활용한 지리 학습, 글로벌 친구 만들기, 음악 중심 국제교류 활동 등 **국제 교류 경험 제공**.	유아가 **타 문화를 역동적으로 경험**하고, **사회적 조망수용 능력** 향상 및 **세계와의 연결성**을 깨닫는 데 효과적임.
요인 관계 분석	세계시민의식과 공감능력, 생명존중 의식, 공동체 의식 간의 **유의한 영향 관계 규명**.	유아기 세계시민교육이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유아의 **전인적 발달의 핵심 기반**을 형성함을 시사.

II 연구의 배경

• 국내 유아 세계시민교육 연구 동향 분석

세계시민교육 실행의 어려움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 연구 (유아교사 대상)

구분	주요 내용	핵심 연구 결과 및 시사점
인식 및 요구	교사들의 **높은 교육 필요성 인식** 대비 **실제 교육 경험 부족** 조사.	교사들이 세계시민교육을 '아는 만큼 달라지는 교육'으로 인식하며,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지.
실행의 어려움	현장 교사들이 겪는 장애 요인 탐색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 다루는 어려움, **학부모의 부정적 평가 우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부족**).	**교육과정 지원 시스템** 및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
역량 강화	유아교사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지식, 실천, 교수역량 향상).	**체계적인 연수 및 전문성 개발**이 교사의 **교수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핵심**임.
실천 전략	유아의 **관심을 파악**하여, 교육 내용을 **일상생활 속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제시.	**놀이 중심** 및 **생활 중심**의 구체적인 실천 전략 마련의 중요성 강조.

II 연구의 배경

• 국내 유아 세계시민교육의 현황 및 한계(누리과정 연계성 중심)

구분	주요 내용	시사점 및 한계
현황: 누리과정 연계성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인간상으로 제시하며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 영역을 통해 **다양성, 공존, 지속가능성** 등의 핵심 개념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통합 가능성:** 다문화, 인권, 환경 교육 등과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여 GCED 정착의 **중요한 정책적 발판**이 됨
주요 한계	**명시성 및 체계성 부족:** **글로벌 이슈**나 **초국가적 책임감**과 같은 핵심 주제가 누리과정에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기에는 부족**한 실정.	**실행의 어려움:** 현장 교사는 **전문성/교수 효능감 부족**과 **유아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교육 자료 부재**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II 연구의 배경

• 유아 세계시민교육의 현황과 강화 과제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연계성 (2019 개정 누리과정)

인간상: 누리과정은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인간상으로 제시하여, 유아가 타인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유도

연계성: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직접 명시하지 않지만, **사회관계, 자연탐구, 예술경험** 영역을 통해 다양성, 공존, 지속가능성 등의 핵심 개념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통합적 접근: 다문화, 인권, 환경 교육 등과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하여, GCED 확산과 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발판이 될 수 있음

APCEIU
unesco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II 국외 유아 세계시민교육 사례

III 국외 유아 세계시민교육 사례

• 북유럽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핵심 관점	주요 내용 (실천 방식)	세계시민성 및 지속가능성 연계
전체론적 관점	유아의 학습과 **유치원 전체**를 통합적으로 바라봄 **놀이, 학습, 돌봄은 전체론적 교육의 핵심 요소.**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체 학교 접근** **(Whole School Approach)** 구현에 적합. UN 목표 4.7(세계시민교육, ESD) 상호 강화.
유치원 전체의 녹색화	**시설/운영**: 건물 내 유해 물질 제거, 무독성 전환. **식생활**: 친환경/지역 농산물, 주 1~2회 채식. **경제**: 재활용/분리 배출 학습, 장난감/옷 기증 순환 시스템.	교육 공간과 운영 전반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여 환경적 책임 체득.
전인적 배움	유아가 **인지, 사회, 운동** 능력뿐 아니라 **지속가능성 관련 가치와 윤리**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움.	습득한 지식을 **실제 생활에 활용**하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능력 함양.
공동구성 학습	**비형식적, 놀이 중심** 교수 방식 강조. 교사 주도 대신 **유아와 교사의 공동 구성 학습.**	유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능동적 주체(agency)로 성장하며 시민성 경험.
주제 중심 접근	**아동의 삶과 연결된 주제** (농장, 숲, 우정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과 영역 통합 및 확장.	**아동의 참여와 영향력을 보장**하여 민주주의와 시민성의 핵심 실현. 유아 권리협약 기반 **자기 결정권** 지원.

III 국외 유아 세계시민교육 사례

영국 (웨일즈)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및 교육적 접근	핵심 가치 및 실천 사례
핵심 개념	**조화(Harmony)와 전체성(Wholeness)을 중심 개념으로 ESD와 GCE의 연결 강조.**	관계(relationships)와 연결성(connections)에 중점.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영역의 상호 연결성 인식.
정책/교육 과정	**ESDGC**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개발. 유아교육의 기본 가치와 조화의 원칙을 밀접하게 연결.	UN CRC 제29조에 명시된 **평화, 환경 보호, 타인 존중** 등 교육적 의무 뒷받침.
교육과정 특징	**놀이 중심 교육과정** 및 **경험 중심 학습**에 초점을 맞춘 **Foundation Phase Framework (3~7세 교육과정)** 운영.	**7가지 영역** 기반: 개인 및 사회성 발달, 복지 및 문화적 다양성, 언어, 문해력, 의사소통, 수학, 웨일즈어, 신체, 창의적 발달, 세계에 대한 지식 및 이해.
ESDGC 주제 연계	ESDGC의 핵심 주제(부와 빈곤, 건강, 기후변화, 인권, 소비와 폐기물 등)가 교육과정 영역과 상호 연계됨.	유아가 **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행동**을 실천하도록 도움. **가치 기반 교육과정** 강조.
대표 실천 방법	**실외 학습** (예: **숲 학교(Forest School)**)와 같은 **경험 중심 학습** 활용.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협력 및 팀워크 역량** 강화. 사회와 환경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 개발.
주요 장애 요인	실무자들의 **지식 부족, 가치중심교육에 대한 불안감, 시간 제약, 과밀한 교육과정,** ESDGC 주제가 유아에게 **어렵다는 인식.**	주류 교육이 **비판적 성찰 없이 규범을 재생산**하고 인간 능력을 단편화하는 경향.

III 국외 유아 세계시민교육 사례

그리스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및 교육적 접근	핵심 역량 및 교육적 효과
통합적 접근	**경험 중심 교수 방법** 활용. **협력적 발견**과 **비판적 사고** 강조. **민주주의, 권리와 의무, 평등, 연대와 연민, 디지털 시민성** 등 포괄적인 주제 통합.	유아의 **세계시민역량 강화에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 유아가 시민성과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견해** 제시.
실천 연구 (다문화 유치원 사례)	**교육적 실천 연구** (Action Research) 실행.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흐름 속에서 시민교육 진행. 교사는 유아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하는 **참여 중심 교육 설계자** 역할.	**비판적 사고, 공감, 사회적 책임감** 발휘. **민주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 실천 능력 입증. 다양성, 평등, 참여권, 공공 문제 해결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향상.**
시사점	유아기부터 시민성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필수적. 유아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은 **행동과 자기 표현의 전제 조건.** 유아교육 과정의 인권/시민성 통합은 **변혁적 역량**을 지님.	**사회적 불의와 차이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촉매 역할. 유아도 **정치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가능하며, **능동적 시민의 잠재력**을 가진 존재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줌.

III 국내외 유아 세계시민교육 사례



포르투갈 및 스페인 사례

구분	포르투갈 (Portugal)	스페인 (Spain)	공통점 / 특징
정책적 기반	**국가 시민교육 전략** (ENEC, 2017)을 통해 시민성 교육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통합.	교육 정책 문서에서 세계시민교육(GCE)을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지 분석 연구가 활발.	**UNESCO (2015) GCE 프레임워크**의 차원에서 교육과정과의 호환성 및 통합성을 분석함.
GCE와의 호환성	GCE 원칙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호환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개발 교육(DE)의 오랜 전통이 GCE로 이어짐.	GCE 원칙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호환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GCE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	두 나라 모두 교육 정책 문서가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 양성**이라는 GCE의 원칙을 지지함.
목표 지향점	아동이 **자율적**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이해하고 **사회 변혁**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이 되도록 교육.	포용적이고 접근가능한 교육환경을 통해 모든 아동이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얻도록 지원.	**글로벌 문제**에 대한 이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 **책임감 있는 행동**을 강조하며 GCE의 핵심 요소를 반영.
교육적 접근	**민주적 시민성** 함양과 **인간 존엄성**을 근본 가치로 인식	아동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공감 능력**과 **협력 기술**의 조기 개발 및 **다양성 존중**과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조함.
ESD 연계 (교사 양성)	정서 교육(Emotional Education)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유아/초등 교사 **초기 양성 과정**에 ESD 관련 내용 통합은 미흡함.	유아/초등 교사 초기 양성 과정에 정서 교육과 관련된 내용 통합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ESD와 GCE는 **상호 연관된 글로벌 차원의 시민교육**으로 인식되지만, 교사 양성 과정에서의 **체계적 통합**은 강화 과제로 남아 있음.

III 국내외 유아 세계시민교육 사례



호주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및 연구 접근	유아의 삶의 경험을 통한 5가지 핵심 주제
연구 접근	**실존 현상학적 심리학** 접근을 적용하여 유아의 **삶의 경험(lived experiences)** 심층 분석.	**유아가 아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미 세계시민의 **특성을 실천**하고 있음을 확인.
교육 정책 배경	유아교육 정책 개혁을 통해 **사회·정서적 학습(SEL)** 강조. 이는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요소와 긴밀히 연결됨.	**1. 사회적 경험의 중요성 인식**: 또래와의 상호작용, 놀이, 갈등 해결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관계, **공동체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
핵심 발견	유아의 **사회적 경험**과 **디지털 경제적 문해력**이 글로벌 시민성 형성에 영향. 일상 속 관찰을 통해 **세계와 연결된 존재로서의 자각** 형성.	**2.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존중**: 다양한 국가 사람들 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인식하며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다"는 포용성과 공감 능력 형성.
	공정성과 정의에 대한 감각은 친구 선택과 행동 판단에 반영됨. **공동체 참여와 책임감**은 놀이와 실천을 통해 발현됨.	**3. 사회적 행동 기준의 친구 선택 (도덕적 판단)**: 외모/취향이 아닌 **행동과 태도**를 기준으로 친구 선택. **협력, 배려 등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이해가 시민적 책임감의 초기 형태.
		4. 기술적 문해력과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기기 능숙 활용 및 **안전 규칙 인지. 정보 윤리, 자기 보호 능력** 등 디지털 시민성 기초 형성.
		5. 소비자 의식과 자원 활용 판단력: 돈의 가치, 가격, **저축/기부** 개념 이해. 자원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과 공동체 의식** 발현 (지속가능성 및 공정성 초기 인식).

III 국내외 유아 세계시민교육 사례

뉴질랜드(Te Whariki 교육과정)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세계시민교육(GCE) 접점 및 교육적 효과
교육과정 정의	뉴질랜드 국가 유아교과정. 테파리키는 '짠다(weaving)'는 의미, 유아의 학습 경험을 엮어가는 **철학적 틀** 제시.	유아교육을 통한 **미래 글로벌 시민 육성** 의지 반영. 다문화주의, 마오리 문화 존중 등 **문화적 포용성**이 높은 환경 제공.
핵심 원칙 (4가지)	1. **권한 부여 (Empowerment)**: 유아가 능동적 학습자로서 학습을 주도.	유아 **자율적, 유연하며** **다문화적 맥락에 적응**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설계. **정치적·사회적 주체 형성의 장**으로 기능.
	2. 전체적 발달 (Holistic Development): 인지·정서·사회·신체 발달의 통합.	유아가 자신을 가족, 국가를 넘어 **지구와 우주의 일부**로서의 정체성으로 확장하도록 도움.
	3. 가족과 공동체 (Family and Community): 유아 학습이 가족 및 지역사회와 연결.	**공동체 중심 교육** 강조.
	4. 관계 (Relationships): 유아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	**공감과 연대, 도덕적 책임감** 학습. **타인 존중,**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역량 함양.
학습 영역 (5가지)	**안녕(Well-being), 소속감(Belonging),** **기여(Contribu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탐색(Exploration)** **5가지 원칙과 유기적으로 연결됨.**	긍정적 감정 표현, 협력적 관계 형성 등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강조.

III 국내외 유아 세계시민교육 사례

• 서아프리카 사례

구분	주요 내용 및 비판적 관점	세계시민교육의 문화적 적합성 원칙 (3가지 목표)
핵심 관점	문화적으로 적합한 유아교육(ECCE)을 세계시민교육(**GCE**)의 핵심축으로 재개념화. **서구 중심 모델 비판** 및 **현지 문화/토착적 가치 통합** 강조.	**1. 토착 지식 및 문화 존중:** 지역 문화유산/언어를 교육 기초로 활용 유아 정체성 강화 및 교육 지속 가능성 확보.
비판점	유네스코 GCE는 보편적 가치(평화, 인권)를 강조 그러나 서구 중심 ECCE 모델은 비서구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사회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해 **부적합한 모델** 양산 가능성.	**2. 불평등 해소 및 형평성** 취약 계층 유아에게 양질의 ECCE를 제공하여 학습 격차를 줄이고 사회 정의 실현의 기초 마련.
목표	진정한 세계시민성은 **보편적 가치**와 함께 **지역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지식**을 존중하고 통합할 때 실현 가능.	**3. 전인적 발달 촉진** 인지 외에 **건강, 영양, 위생**을 포함하는 총체적(Holistic) 접근을 통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의 균형 있는 발달 증진.

IV 국내 유아 세계시민교육 현장 사례

IV 국내 현장사례 1: J 병설유치원

• 국내 J병설유치원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세부 실천 활동 사례 (놀이 및 생활 중심)
교육 목표 및 중점 철학	세계시민교육의 하위 요소인 **다문화 교육**과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통합 실천,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반편견, 인성, 다름 이해 교육을 중시함.	**인성 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교과 전담 교사가 병행하여 전문성 있게 실시. 일회성 행사보다는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접근.
핵심 역량	**다름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계 시민적 감수성** 함양	**다문화 교육**의 핵심은 **반편견 교육**으로 간주. 놀이 속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친한 친구가 됨으로써 다름을 수용.
주요 운영 특징	**1. 놀이 기반의 경험 중심 교육**	유아의 관심에서 시작하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다문화 접근 그림책을 통해 다양성, 협력, 정체성, 문화 이해 등 다문화 요소 경험.
	2. 지역 사회와의 적극적 연계	**지역 내 가족센터** 다문화강사 초청 교육. **굿네이버스** 연계하여 세계 어린이 돕기 저금통 활동 및 **평화 교육** 실시.
	3. 다양한 주제 통합 교육	**장애 이해 교육** (특수학급과의 통합 교육) **친환경/지속가능 발전 교육** (쓰레기 캠페인, 텃밭 가꾸기, 숲 산책). 다문화, 인성, 안전 등 교육 요소를 **하나의 놀이 속에 복합적**으로 포함.
	4. 초등과의 연계 교육	유**초 이음 활동**을 통해 초등학교와 교육과정 공유, 수업 참관 및 협력.

Ⅳ 국내 현장사례 1: J 병설유치원

• 국내 J병설유치원

교육적 효과 및 시사점	**자연스러운 편견 해소 확인**	통합 교육을 통해 장애 및 외국인에 대한 편견 없이 유아들이 함께 놀이하는 것을 교사가 체감.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 효율화	**교과 전담 교사** 배치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줄고 수업이 수월해짐. 교육청 지도서, 그림책 놀이 연수, 전문 컨설팅 등을 통해 역량 강화.
	유아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 제시	교육청의 **의무 교육** 지정 및 **교수 자료/콘텐츠 개발** 지원이 있다면, 유치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정착과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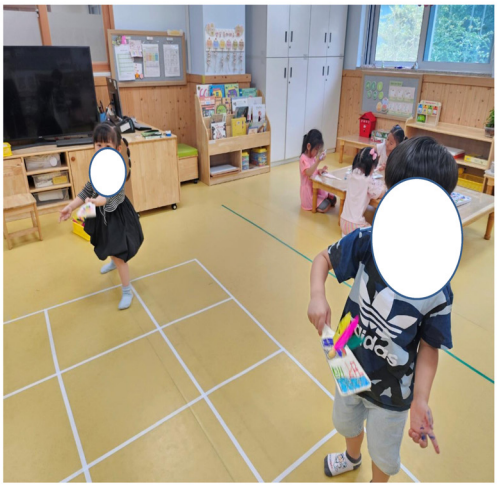
국내 현장사례 1: J 병설유치원

• **캠페인 활동**

• 쓰레기통에 버려요



• **놀이로 하나되는 다누리세상**



Ⅳ 국내 현장사례 1: ㅈ병설유치원

• 마트로슈가 인형 만들기



Ⅳ 국내 현장사례 1: ㅈ병설유치원

• 교육 현장 기반 다문화 지도서

• 교사용 연수 자료





Ⅳ 국내 현장사례 1: ㅈ 병설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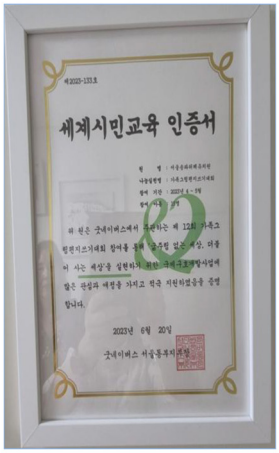
- 교육 현장 기반 다문화 지도서
- 교사용 연수 자료



Ⅳ 국내 현장사례 2: ㅉ 단설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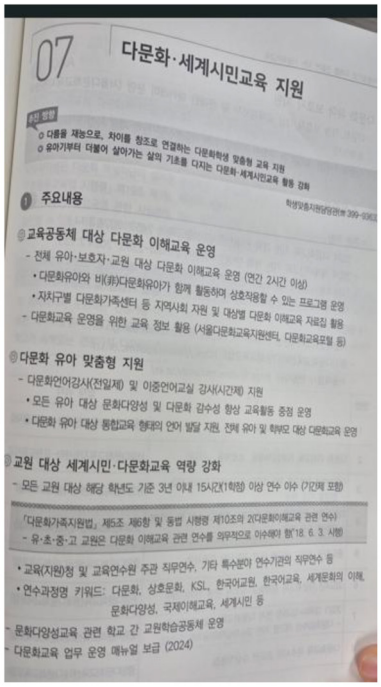
- 국내 ㅉ 단설유치원





굿네이버스와 연계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실현을 위한 국제구호사업,
'가족그림편지쓰기 대회 참여

Ⅳ 국내 현장사례 2: W 단설유치원


07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지원

주요내용

교육공동체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 전체 유아·보호자·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운영 (연간 2시간 이상)
- 다문화유아와 비(非)다문화유아가 함께 활동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별 다문화가족센터 등 지역사회 자원 및 대상별 다문화 이해교육 자료집 활용
- 다문화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 정보 활용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포털 등)

다문화 유아 맞춤형 지원
- 다문화언어강사(전일제) 및 이중언어교실 강사(시간제) 지원
- 모든 유아 대상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 교육활동 중점 운영
- 다문화 유아 대상 통합교육 형태의 언어 발달 지원, 전체 유아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운영

교원 대상 세계시민·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 모든 교원 대상 해당 학년도 기준 3년 이내 15시간(1학점) 이상 연수 이수 (기간제 포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다문화이해교육 관련 연수)
- 유·초·중·고 교원은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18. 6. 3. 시행)

- 교육(지원)청 및 교육연수원 주관 직무연수, 기타 특수분야 연수기관의 직무연수 등
- 연수과정명 키워드: 다문화, 상호문화, KSL,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세계문화의 이해, 문화다양성,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 등

- 문화다양성교육 관련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다문화교육 업무 운영 매뉴얼 보급 (2024)

- 2022년도 교육부 세계시민교육에 기초
- 교육청(본청) 유아 다문화, 세계시민교육 계획에 근거하여 단위유치원의 해당 교육계획 수립
- 인성교육에 공존 등의 개념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가정과의 연계 공유 활동 강조 (표어 작성 등)
- 유아 간의 공유와 홍보 계획 및 실행
- 가시적인 피드백 제공(내 마음의 보석함, 지구팔찌 선물 등)
- 평가도구를 활용한 유아 성과 측정

Ⅳ 국내 현장사례 2: W 단설유치원

- 국내 W 단설유치원

[가정과의 연계 강조]
가정에서 인성교육 관련 표어 작성 및 유치원에 게시

[국제공동화]
홍콩 유치원 의 W유치원 방문을 통한 교육과정 교류 및 자료 교환
(놀이 동영상_일반 및 장애통합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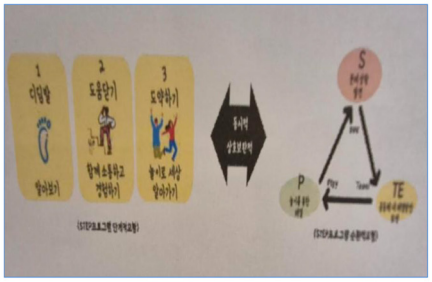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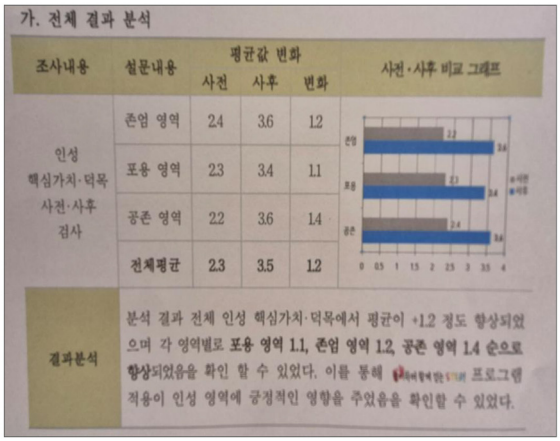
Ⅳ 국내 현장사례 2: W 단설유치원

• 국내 W 단설유치원

[W유치원의 인성교육 모델]
- 알아보기(see)-> 도움닫기(함께 소통하고 경험하기, Team)-> 도약하기 (놀이로 세상 알아가기 Play)
- 문재상황 발견-> 공동체내 해결방안 모색-> 놀이를 통한 해결



[평가도구를 활용한 유아 성과 측정]
- KEDI의 인성검사지를 재구성하여 사전/사후 설문지 조사 및 세부활동 관찰 기록지 분석
- 3,4,5세 79명 대상


가. 전체 결과 분석

조사내용	설문내용	평균값 변화 사전	사후	변화	사전·사후 비교 그래프
인성 핵심가치·덕목 사전·사후 검사	존엄 영역	2.4	3.6	1.2	
	포용 영역	2.3	3.4	1.1	
	공존 영역	2.2	3.6	1.4	
	전체평균	2.3	3.5	1.2	
결과분석	분석 결과 전체 인성 핵심가치·덕목에서 평균이 +1.2 정도 향상되었으며 각 영역별로 포용 영역 1.1, 존엄 영역 1.2, 공존 영역 1.4 순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illegible] 프로그램 적용이 인성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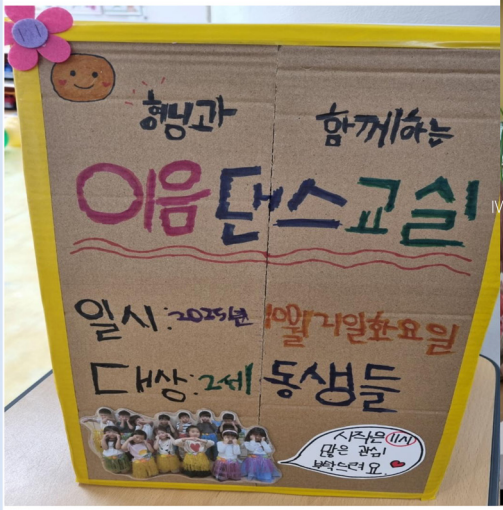
Ⅳ 국내 현장사례 3 : S 어린이집

• 국내 S 어린이집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세부 활동 사례 (놀이 기반 프로젝트)
교육 목표 및 중심 철학	ESD(지속가능발전교육) 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유아들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 유아들의 흥미와 탐구심을 확장하는 - '세계 속 우리나라', '지구 마블' 등의 - 프로젝트 중심 놀이
핵심 역량	단순 지식 습득을 넘어, **공존, 배려, 소통, 협력, 책임감, 다양성 존중** 등 세계시민의 덕목을 놀이를 통해 체득하도록 설계	- 또래 돌봄 및 협력을 통한 실천적 세계시민 역량 함양
주요 운영 특징	**디지털 도구의 적극적 활용**	- **IT 융합 세계 탐색**: 5세 유아의 드론 조종(세계 랜드마크 찾기), 구글 어스/전자칠판 활용(세계 건축물/환경 관찰), 4세 유아의 Zoom 인터뷰(부탄 친구 부모님)
	문화 이해와 타 문화 존중의 균형	- **문화 체험 및 존중**: 우리나라 전통 카페 운영(민족적 자긍심), 하와이 훌라 춤 배우고 동생에게 가르치기(타 문화 존중 및 나눔)
	실천 중심의 공동체 교육	- **공동체 의식 및 배려**: 공동 미술 작품 제작, 동생을 위한 카페 운영 및 춤 나눔 등 협동 활동
교육적 효과 및 시사점	**SDGs 가치 자연스러운 내면화**	-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놀이 활동을 통해 환경, 공동체, 책임 등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핵심 가치 체득
	사회·정서적 학습(SEL) 통합	- 정체성, 공감, 협력, 다양성 존중 등 SEL 요소가 통합되어 유아의 인성 발달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긍정적 영향
	실천적 세계시민교육 모델 제시	- 타 문화 신체적 경험 및 나눔/협력 실천 경험 제공으로, 유아기 교육에 적용 가능한 실천적 세계시민교육 모델 제시

Ⅳ 국내 현장사례 3 : S 어린이집 (이음교육)

• 동생들과 함께하는 댄스 교실



• 동생들을 위한 전통찻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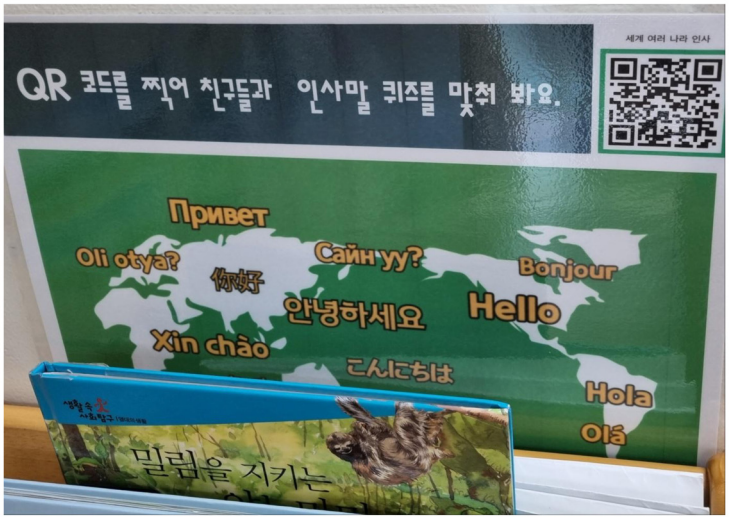
Ⅳ 국내 현장사례 3 : S 어린이집 (IT기기 활용)

• 드론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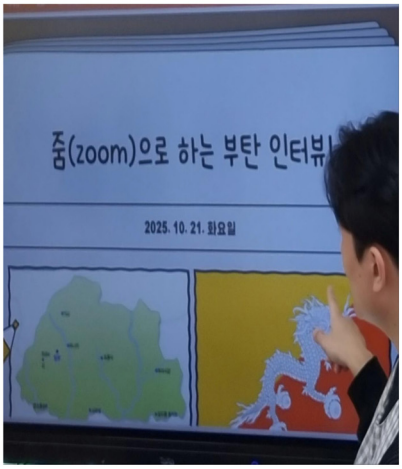
Ⅳ 국내 현장사례 3 : S 어린이집 (디지털 도구 활용)

• QR코드를 활용한 세계여러나라 인사말



Ⅳ 국내 현장사례 3 : S 어린이집 (디지털 도구 활용)

• 줌을 활용한 인터뷰



• 구글 어스를 활용한 세계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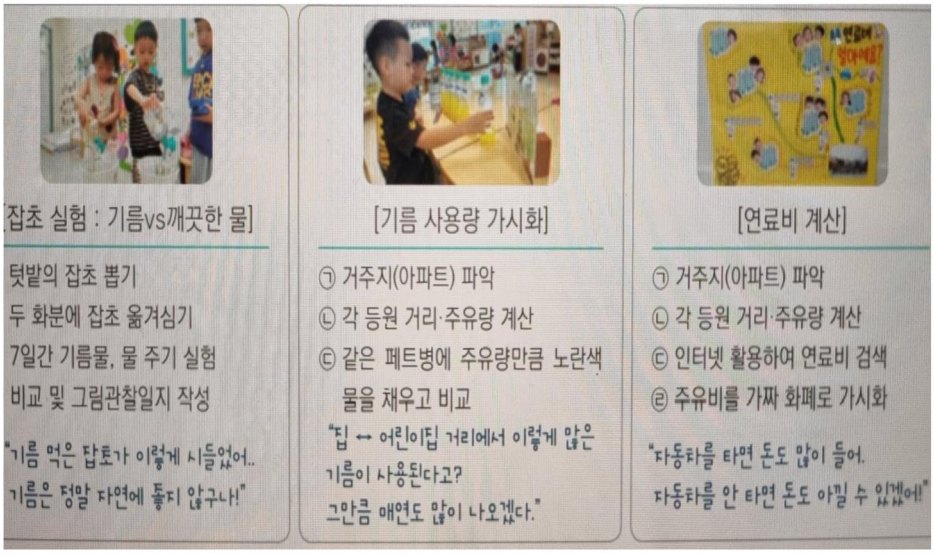
Ⅳ 국내 현장사례 4: P 어린이집

• 국내 P 어린이집

구분	주요 내용 및 특징	세부 실천 활동 사례 (놀이 기반 캠페인 중심)
교육 목표 및 중심 철학	ESD와 세계시민교육을 유아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실천.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교육	- '함께 걸어요, 미소발자국' 캠페인 중심 운영 - (탄소중립, 교통안전, 인권, 물 절약 등 다양한 주제)
핵심 역량	환경, 인권, 협력, 책임과 같은 **세계시민적 가치**의 자연스러운 습득 및 내면화. **사회적 감수성, 공감 능력, 시민성** 향상.	-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감 함양 - (기부 활동 연계), 포용적 태도 형성 (다양성 교육)
주요 운영 특징	1. **놀이 기반의 실천 중심 교육**	- **탄소중립 캠페인**: 기름 자국 발견 → 오염 원인 탐색/해결 방안 조사 → 캠페인 기획 및 QR 광고 제작 → 지역 버스 광고/시민 홍보
	2. **지역사회와의 적극적 연계**	- **탄소중립 실천**: 굿네이버스 연계 기부 활동, 운송회사의 버스 무료 광고 지원
		- **교통안전/시민 참여**: 어린이집 앞 횡단보도 신호등 부재 문제 인식 → **직접 민원 제기** 및 지역 경찰서 협력 → 실제 신호등 설치 추진
	3. **다양한 주제 통합 교육**	- **인권 및 다양성 교육**: 장애인 체험 (타인의 입장 이해), - 흑인 난민에 대한 고정관념 해소 및 문화 존중 학습
	4. 교육**공동체 연계 교육**	- 부모 및 지역 주민의 캠페인/민원 활동 참여, - 다른 반/연령 유아들과 활동 공유 및 협력
교육적 효과 및 시사점	**능동적 시민 역할 경험**	- 유아들이 문제 인식, 해결 방안 모색, 민원 제기, 캠페인 기획 등 - **지역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주체**로 성장
	사회적 영향력 확장	- 교육이 교실 활동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 **지속 가능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
	유아기 세계시민교육의 가능성 제시	- 세계시민교육이 유아기부터 충분히 실천 가능하며, - **놀이 중심의 접근 방식**이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

Ⅳ 국내 현장사례 4: P 어린이집

• 탄소줄이기 (1)



Ⅳ 국내 현장사례 4: P 어린이집

• 탄소줄이기 (2)

■ 자동차로부터 나오는 탄소 줄이기!

우리는 탄소를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을 떠올리고 실천으로 옮겨보았다.



첫 번째 방법) 전기차 사용하기

"안녕? 00이 아빠야. 전기차 해설사가 되어줄게~"

가정 지원을 통해 전기차를 가까이서 살펴보았고 교실에서는 전기차 열풍이 일어났다. 동시에 탄소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사이며 지금도 친환경 개발이 이뤄짐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법) 자전거, 킥보드, 도보 이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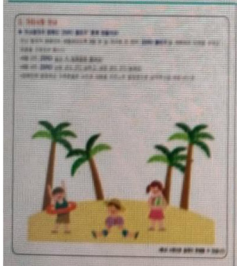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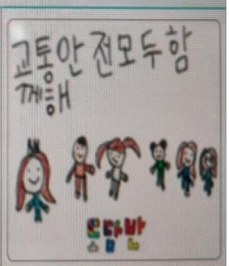
"난 오늘 킥보드 타고 왔어. 기름 하나도 안 썼어!"
"나도 나도! 그런데 킥보드 세울 곳이 없어서 불편했어."
"킥보드 주차장 만드는 거 어때? 동생 반에도 알려주자!"

킥보드 주차장을 완성 후 킥보드 주차장을 소개하는 공지가 올라갔다. 그리고 탄소 중립실천을 다짐하는 부모님의 33개의 댓글이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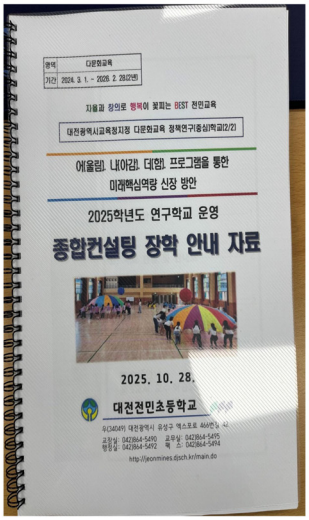
Ⅳ 국내 현장사례 4: P 어린이집

• 탄소줄이기 (3)

6. 지속발전을 위한 또 한 번의 도약, 다섯 발자국

지구환경을 위한 미소발자국 관점		교통안전을 위한 미소발자국 관점	
어린이·교사	지역사회	부모	지역사회
			
✓ ZERO 챌린지 실행 중	✓ 지속발전협의회 협업 진행	✓ 'ESD세미나' 부모교육 개최	✓ 교통+환경 플로깅 ✓ 11月, 아나바다 계획

Ⅳ [참고] 국내 현장사례 5: 초등학교



교육 현장 기반 교사용 연수 자료

- 다문화교육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제작
- 클러스터 학교 소속 교사 간의 연수용 자료로 활용 후, 수정보완을 거쳐 교육청 소속 교사에게 공개

실천 사례 중심 교육 자료

- 정책학교 소속 교사들이 교육 실천 사례, 운영 노하우 등을 직접 제작함

Ⅳ [참고] 국내 현장사례 5: 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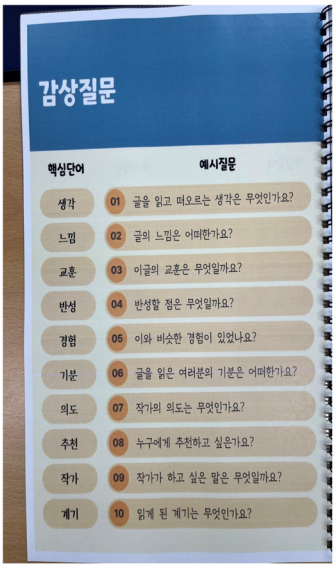




놀이 중심 언어 및 문화다양성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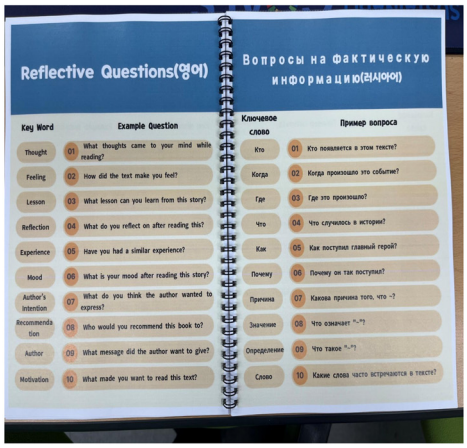
- 영역별 낱말 카드
- 전세계 게임 소개, 유튜브 연동

Ⅳ [참고] 국내 현장사례 5: 초등학교



교사용 외국어 지도서

- 영역별 핵심 단어 및 예시 질문 소개



Ⅴ 유아 세계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V 유아 세계시민역량 강화 방안(1): 정책 방향

• 정책 방향

유아기 세계시민교육의 제도적 정착

- (As-Is) 현행 2019 누리과정은 '더불어 사는 사람'을 인간상으로 제시, 2022 초중등교육과정에서도 총론과 교과별 성취기준에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부족함
- (To-Be) 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세계시민역량 역량 및 학습 경험 요소를 명시화하고, 연령별 성취수준과 학습 경험 기준 제시, 유초 통합교과 연계 구조 설계. 정부부처(교육부, 교육청) 및 초중등교육기관의 세계시민교육 실천 경험 활용

사회정서적 학습 중심의 교육과정 강화

- (As-Is) 유아 세계시민역량은 놀이·상호작용·생활 경험 속에서 함양되지만 일부 특별활동으로 진행 중임
- (To-Be) 정서·관계·협력·환경 등 사회정서적 학습과 실천 중심의 놀이 및 프로젝트형 세계시민교육 모델 개발 (*특색사업이 아닌 당연한 기초교육으로 자리잡아야*)

문화다양성 기반 다언어·외국어 경험 환경 조성

- (As-Is) 유아기 외국어 교육이 주로 '영어 조기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음
- (To-Be) 유아기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다문화 존중과 문화 간 소통 역량 함양임. **그림책, 노래, 놀이, 생활 속 언어 교류, 다문화 가정 참여 등 다양한 생활기반 언어경험 환경 조성**

V 유아 세계시민역량 강화 방안(2): 정책 방향

• 정책 방향

유아교사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 (As-Is) 교사는 세계시민교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실천 경험 부족에 따른 부담이 있음
- (To-Be) 교사 연수·사례·수업자료 제공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강화 필요

가정·지역사회·글로벌 파트너십 연계 강화

- (As-Is) 유아의 세계시민성은 가정, 지역사회, 또래 집단, 문화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만 일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보호자의 민원과 같은 교수 불안도 존재함
- (To-Be) 지역 연계형 프로젝트, 초등학교 연계, 지역 아동보육 및 교육기관 연계, 등 지역 거버넌스 기반의 공동 실천 생태 구축

V 유아 세계시민역량 강화 방안(3): 정책 과제

• 정책 과제

유아기 세계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 누리과정 개정: 유아 세계시민역량 개념화 및 지식·정서·행동 영역별 연령 기준 제시 • 교육청 내 세계시민교육 담당 업무 통합 운영 검토 (다문화/세계시민교육 사업 연계) • 유아 세계시민교육 선도 교육기관 선정 지원 (APCEIU 대학교 세계시민교육 강좌 개설 사업) • 유아 세계시민교육 이행 모니터링 강화 (APCEIU 등의 경험)
사회정서적 학습 중심의 교육과정 강화	• 감정 표현 · 공감놀이 · 협력 과제 · 갈등 조정 활동 중심의 교수학습 모델 개발 • 정서·관계·협력·환경 실천 중심의 놀이 및 프로젝트형 세계시민교육 사례 발굴
문화다양성 기반 다언어·외국어 경험 환경 조성	• **초등 다문화교육 경험(세계 문화 놀이·음식·의상·음악 프로젝트 확대)의 확대** • **그림책, 노래, 놀이, 생활 속 언어 교류, 다문화 가정 참여 등 생활기반 언어경험 환경 조성**

V 유아 세계시민역량 강화 방안(4): 정책과제

• 정책 과제

유아교사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 유아교사 대상 세계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개발(마이크로 연수, 현장 코칭 등) •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 내 유아교사 참여 기회 제공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 등) • 세계시민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유아 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	• 측정도구, 포트폴리오·관찰 메모 등의 양적, 질적 평가 루브릭 개발 (공감· 공존, 포용, 협력, 책임, 지속가능성 등). • 단위기관 자체점검표(연 2회)와 시·도 교육청 수준의 컨설팅 연계 - 간략한 현장친화용 가이드와 연계 (문화적 다양성, 안정성, 맥락성 등)
가정·지역사회·글로벌 파트너십 연계 강화	• 유아 세계시민교육 정책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 등) • 유아교육기관 대상 세계시민역량 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가정과의 연계 및 지역기반 학습 (Community based learning)을 적용한 유아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


2025.11.11
2025
영유아교육 포럼
unesco
Centre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감사합니다.
hwanbo@gmail.com
mgmoon1@gmail.com
ok430@hanmail.net

토론 및 질의·응답

다문화 유아교육 기관 운영에 대한 사례연구

어성연 교수 |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지난 20년간 한국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회적 통합과 이주민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저출생*고령화사회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이웃인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수는 이미 전체 인구의 5%를 넘어, 이들은 더 이상 수 적으로도 소수집단이 아닌 우리사회의 또 하나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 의하면 2024년 다문화 가족 (학생)자녀는 21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2006년 2만5천여 명과 비교하여 지난 20년 간 대략 10배 가까운 증가를 보여준다. 향후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로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가정 출생아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2%에서 2020년 6.0%에 이르렀으며, 2023년 다문화 가정의 자녀의 약 57%는 6세 이하의 영유아로 보고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의 재정을 필두로 시작 된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09년 다문화교육법의 개정 그리고 다문화가정종합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는 정책 마련과 재정적 지원에 이르기 까지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2015년 시범운영으로 시작 된 다문화유치원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과 서비스는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유아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사례연구는 통계수치로는 설명에 한계가 있는 현, 영유아 교육현장의 실천 상의 어려움을 현장 전문가들의 눈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내용과 근원적인 이유를 맥락적 상황에서 잘 파악할 수 있고 그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반면, 연구진의 보고서에 나타난 유아교육기관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다면화와 다변화 국면을 보여준다. 이는 다문화사회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의 소수를 대상으로 하였던 다문화교육 정책 및 서비스의 접근을 Re-Framing 할 시점이 도래하였음을 나타낸다. 즉, 내국인 vs 다문화가정의 이분법에 근거한 'One size fits all' 접근은 이제 충분치 않는 듯 하다.

다문화가족의 다양성은 최근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2025. 7.)에도 잘 나타난다. 응답자 중,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7%와 10년 미만이 16%인 반면 10년 이상 거주자는 76%에 이르렀고 20년 이상 거주자도 28%에 달한다. 같은 조사에서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가구 비율이 65..8%로 통계 조사 이후 최다였다고 보도 된 바 있어 다문화가정의 소득 분위가 다

양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들의 한국어 수준의 스팩트럼 폭도 넓다. 어떤 유아들은 알려주지 않으면 다문화가정 유아인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또래와 비슷한 혹은 더 능숙한 한국어 수준을 보여주는 가하면, 교사의 지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눈치로 적응하는 유아들도 한 반에 존재한다.

다문화부모들의 자녀 양육의 어려움도 변화하고 있다. 만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80%의 응답자들이 양육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과거 조사에서 자녀양육의 가장 큰 어려움이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이 가장 빈번히 언급되었으나, 2024년 조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움"의 돌봄의 공백 (24.6%), 자녀 양육에 대한 배우자와 가족과 의견차이 (21%), 한국어를 가르치기 어려움은 17.8%로 세번째로 위치하였다. 앞서 발표 한 다문화유아교육기관 사례들에서도 유사한 내용들이 보고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몇 가지 논의를 하자면:

첫째, **유연한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영유아교육기관의 공급의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구진들의 사례연구결과에서도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농업 근로자'와 같은 비전통적 업무시간을 근무하는 다문화부모들을 지원하는 유연한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영유아기관 공급의 확대는 절실하고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대응 노력은 비단 다문화 부모들은 물론 유사한 비전통적 업무시간에 근무하는 내국인 부모들의 어려움 역시 지원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아울러 유연한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교사 인력 추가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재정적 지원과 행정지원이 요청 된다.

두 번째로, 자녀양육에 대한 배우자와 가족과 의견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현장에서 교사-학부모 간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어 지고 있었다. 이에, **교사들의 문화적 효능감 증진을 위한 교사교육 기회의 마련과 더불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도 모색** 되어야 한다. 내국인 학부모와 비교할 때, 월등히 참여율이 낮은 다문화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지역사회의 상황에 따라 모색되고 모범성공사례의 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부모들이 쉽게 가정에서 전자기기로 접근할 수 있는 부모교육자료들이 각 나라 별 언어와 한국어로 병용되어 제작 될 필요가 있다. 예로 QR Code로 접근할 수 있는 학부모 지원 자료 등.

세 번째로, 교사들의 한국어 지도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자원(가족센터 혹은 다문화가족센터)의 활용에 있어 제도상의 문제들이 해결 될 필요성이 제기 된다. 반드시 유아의 부모만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교사의 취약위기아동 발굴에 대한 의무를*** 적용하여 교육기관 내에서 언어발달 및 기타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가 수정**되어야 하고, 언어적 서비스 지원이 원내에서 수월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유관기관들은 행정 지역 내, 다문화유아교육기관을 통솔하는 지자체 혹은 교육청 부처와 MOU를 통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기획과 예산 계획을 미리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한다. 특히 다문화 영유아가 다수를 구성하는 지역사회에서는 별도의 특별 재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보여주기

식 순차적인 재정지원은 현장에서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좌절감과 무망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과 이에 따른 감독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인력의 발굴 및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우선 대상으로는 제안 되는 것은 동일한 국가에서 이주한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혹은 청소년들의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봉사활동 혹은 일자리 창출** 등이 그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초기부터 자조모임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고, 그 자조모임을 바탕으로 이후 통번역사업과 멘토링 사업을 위한 인적자원 풀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자조모임, 통번역사업, 멘토링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미 확보 된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영유아교육현장을 연계하는 지역사회 Taskforce team을 구축하여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시로, 기존의 다문화 인적자원을 영유아교육기관의 학기초 영유아 적응 기간 동안 우선 배치하여 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은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영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모국어지원과 기관 적응에 있어 유용한 도움과 정서적 지원이 됨은 물론 담임 교사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은 자명하다.

두 번째 지역사회 자원봉사 가능 인력으로 **자국민 유학생**을 들 수 있다. 서울 경기지역은 물론 지방대학의 경우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다. 이들 중, 유아교육 혹은 교육학 관련 전공자의 **교육봉사시간의 활용**은 물론 非교육학 관련 전공자들의 경우 (멘토링)**교양과목의 개설**을 통해 지역사회 유치원과 학교에서 자국 언어를 사용하는 영유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중,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초*중등 아동*청소년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 이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하는 바이다.

다섯 번째로 한국인 영유아,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인지하는 **역차별 해결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사례연구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 따라서는 내국인 영유아가 구성원의 소수가 되는 경우 불편함을 느끼는 학부모들의 경우 기관을 이동하는 선택을 한다. 다문화 아동의 차별과 배제를 염려하였으나, 현실에서는 소수인 내국인 아동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기도 한다. 더 심각한 사례를 들자면, 다문화가족 밀집 지역에서는 학생들은 모두 외국인 자녀 혹은 다문화 유아이고 교사만 내국인인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이때 교사가 느끼는 것은 "절대적 압도감 (Overwhelm)"이다. 유아들의 모국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상황 파악이 안된 교사에게 친절한 유아가 설명을 해주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루틴이 되면 그 교사는 반을 통솔할 수 없다. 압도된 교사들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의 이탈로 인한 특정 지역 유아교육기관들의 게토화 현상은 심화 될 것이고 이는 사회통합이 아닌 자연적 분리 현상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내국인에게도 다문화 유아(가족)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환경이 된다. 유아교육기관의 상황을 역차별로 인지하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문화적 역량과 효능감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실천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다문화유아교육기관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교사들 간의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건강한 **다문화-학습 공**

동체를 꾸리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적 그리고 전문적 지식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유아교육기관의 건강한 학습공동체는 각 지역사회의 특성 (예로, 다문화 유아 구성비, 지역사회 다문화관련 가용 자원 현황 등)을 반영되어 구성 되고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되어야 한다. 이때, 각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학습커뮤니티 형성과 작동을 위한 지원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물음이 제기 된다. 교육청이 지원을 할 것인지? 지자체 아동복지과가 지원할 것인가? 유보 통합이 진행되어 혼란한 현 시점에 책임소재와 R&R에 대한 결정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는 바이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자면, 유치원의 경우, 현행 교육복지지원사업의 참여유치원과 중점 유치원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복지지원사업과 다문화유아교육기관 지원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기획하는 방안도 제시해 보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다문화가족 그리고 다문화 유아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서 다양한 강점과 가능성을 갖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구성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그리고 다문화 유아는 동일한 집단이 아니며, 다양한 문화적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 이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은 영유아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고도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다문화 가족 그리고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의 적응과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유지하며, 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사회적 격차와 차별 없이 건강하고 밝게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은 바로 지금 우리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당연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끝)

일상과 관계에서 다시 바라보는 세계시민역량

김은혜 | 계명대학교 유아교육과

오늘날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연결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기관 역시 더 이상 단일한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한 공간이 아니며,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언어,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문무경, 이상옥 연구원님이 발표해 주신 「유아 세계시민역량 강화 방안 연구」는 유아교육이 어떤 세계를 바라보고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로서 이런 중요한 논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육아정책연구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 저는 유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유아와 함께 그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유아에게 '세계'란 어디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아가 만나는 세계는 거대하고 추상적인 '바깥의 어딘가'가 아니라, 지금 함께 살아내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멀리 있는 낯선 대륙이나 외국의 누군가가 아니라, 함께 놀이하고, 함께 숨 쉬는 친구, 교사, 자연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일상 그 자체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을 정서적 공감, 타자 이해, 연결감, 책임적 실천 등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감각과 윤리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유아가 이미 세계와 얽혀 살아가고 있는 관계적 존재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유아는 놀이 속에서 타자, 환경, 사물과 만나며 자신과 세계에 대한 감각을 형성해 갑니다(Malaguzzi, 1994). 이때 유아에게 세계는 지리적 범주나 국가 단위의 구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마음의 관계망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멀리 있는 세계를 설명하거나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관계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세계시민교육은 거창한 활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생성됩니다. 그렇기에 세계시민교육은 특별 프로그램이나 체험 중심 접근보다는 일상의 감정과 관계를 교육의 장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둘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발표에서는 세계시민역량이 가르쳐야 할 지식이 아니라, 유아가 세계와 맺는 관계의 방식 속에서 서서히 생성해 가는 실천적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설명을 통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서로를 만나는 순

간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형성하는 경험을 통해 시민성을 형성(Biesta, 2011)하는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발표에서 지적한 것처럼, 현장에서는 종종 세계시민교육이 행사 중심, 특별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그 나라의 음식을 맛보거나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활동, 혹은 가난한 나라의 친구를 돕는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세계를 우리와 다른 타자의 세계로 구분하거나, 우리는 돕는 자이며,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위계적 시선을 은연중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Wiesböck(2020)는 차이를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경계 짓기와 배제를 조장할 수 있으며, 차별의 해소는 지식적 정보가 아니라 관계 맺음을 통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불쌍한 친구를 돕는 교육이 아니라, 존엄과 평등을 함께 배우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성별, 인종, 국가, 문화, 사고가 달라도 모두 존중받아야 할 동등한 존재임을 몸으로 체화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유아가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관계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놀이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 강조된 것처럼, 세계시민교육은 단일 주제나 일회성 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놀이와 생활 전반에 스며있는 가치 중심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유아가 오래 머무르고, 느끼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길고 느린 호흡의 배움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사는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교사가 가르치는 사람에서 유아와 함께 세계 속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 머무르고 관계 맺는 돌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기에(Noddings, 2012), 교사는 세계시민성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아와 함께 세계를 탐색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동행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새로운 수업이나 활동을 추가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유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결을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지식 중심 연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Wenger(1998)가 제시한 것처럼, 함께 살아낸 경험을 함께 다시 바라보고 성찰할 때 교사는 자신의 실천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발표에서 제안된 교사학습공동체 기반 실천은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은 교사의 개인 삶을 넘어, 유아·교사·가정·기관·지역사회가 함께 관계를 형성하는 생태적 실천이어야 하며,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함께 되어가는 문화이어야 합니다.

유아는 세계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서 길러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세계와 얽혀 살아가고 있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묻고 새롭게 바라보는 실천의 과정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이러한 실천적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개념적 토대와 현장 실행 방향을 균형 있게 제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유의 지평을 열어주신 연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유아와 교사,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배우는 연결의 교육, 관계의 교육, 함께 되어가는 교육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

Biesta, G. (2011). *Learning democracy in school and society: Education, lifelong learning, and the politics of citizenship.*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Malaguzzi, L. (1994). *The hundred languages of children: The Reggio Emilia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C. Edwards, L. Gandini, & G. Forman, Eds.). Ablex Publishing.

Noddings, N. (2012). The caring relation in teaching. *Oxford review of education, 38*(6), 771-781.

Wenger, E. (1998). *Communities of Practice: Learning, Meaning, and Ident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esböck, L. (2020). 내 안의 차별주의자*[In besserer Gesellschaft. Der selbstgerechte Blick auf die Anderen]*. (장혜경 역). 심플라이프. (원저 2018년 출판)

MEMO

MEMO

MEMO

2025 영유아교육 포럼

문화다양성 교육의 쟁점과 실천

주최 교육부·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